

KLPGA members

2017 | vol.55 | SEPTEMBER

09



Cover story

김지현

Special

최고의 경쟁이 이어지는 무대,
KLPGA투어를 둘러보자

MYO
MEE

사자니 부담되고
사고나니 후회될 땐, 빌려봐!



사지 않고 다 맛보는
묘미가 있다

프리미엄 유아동 아이템부터 트렌디한 레저·패션·가전까지

지금, 묘미를 다운 받으세요!

GET IT ON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기준) (2016년 9월 기준) (2016년 9월 기준) (2016년 12월, 증권업계 최초)
 | 1969년 설립 | 5년 연속 신용등급 AA+ | 고객자산 209조 | 총자산 44조 | 소비자 중심경영 CCM 인증 |

48년간의 결과가 보여줍니다
 누가 대한민국 금융투자의 대표인지.

 NH투자증권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총자산/고객자산(2016년 9월말 공시자료, 사업보고서) *5년 연속 신용등급 AA+(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기준) *증권업계 최초 소비자 중심경영 CCM인증(201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16-06507호 (2016-12-26~2017-12-25)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농협이 되겠습니다

Contents

KLPGA 멤버십 매거진 2017년 9월호

Section 01

One + KLPGA

- 06 멤버십 서비스 회원혜택과 회원동정
- 12 투어스케줄 2017 정규투어, 드림투어, 점프투어, 챔피언스투어 스케줄
- 16 투어프리뷰 미리 둘러보는 9월 KLPGA투어
- 18 KLPGA 뉴스 KLPGA 주요 뉴스 및 공지사항
- 22 투어뉴스 KLPGA투어 소식
- 28 베스트 포토 박준석 공식사진기자가 뽑은 KLPGA투어 베스트 명장면

Section 02

Two + People

- 30 커버스토리 골프 인생을 새롭게 그리다, 김지현
- 34 라이징스타 부진을 딛고 화려하게 날아오르다, 강율빈
- 38 특집기사 최고의 경쟁이 이어지는 무대, KLPGA투어를 둘러보자
- 42 라이벌 열전 9월, 부활을 꿈꾸다 고진영 vs 이정민
- 44 웹툰 골프요정 케이

Section 03

Three + Talk

- 48 핑크돌보기 잘못된 자세가 부르는 디스크 손상
- 50 트렌드 2017 새롭게 발표된 세법개정안
- 52 그녀들의 식탁 풍성한 가을의 맛, 연어
- 54 필드#해시태그 '나만의 골프 사랑법'을 공유해주세요!
- 55 스태프투어 갤러리 참여 이벤트 '스태프투어'
- 56 파고다스타의 생활회화 놀이공원
- 56 케이를 찾아라!

Cover Story

표지이야기

오렌지처럼 상큼한 미소의 김지현 프로가 이번 9월호를 장식했습니다. 탈탈한 웃음과 함께 KLPGA투어를 누비는 그는 올시즌 생애 첫 우승과 다승, 메이저 대회 우승을 기록하며 어느때 보다 바쁜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투어에도 좋은 흐름이 김지현 프로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발행일 : 2017년 8월 25일 VOL.55호 발행인 : 강춘자

발행처 :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85길 13(대치동) 송석빌딩 8층

TEL : 02-587-2929 FAX : 02-539-6003

홈페이지 : www.klpga.com

기획·디자인 : (주)디자인페이지(02-324-9422)



One + KLPGA

주요 일정 및 행사안내 | 2017.09

09

September

MON	TUE	WED	THU	FRI	SAT	SUN
28	29	30	31	1	2	3
				한화 클래식 2017 (제이드팰리스)		
				KLPGA 2017 제 2차 Kidz 골프 캠프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4	5	6	7	8	9	10
KLPGA 2017 제2차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3차전 (그랜드)		KLPGA 2017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 (군산)				
		KLPGA 2017 영광CC · Volvik 챔피언스 오픈 시드순위전 (영광)		이수그룹 제39회 KLPGA 챔피언십 (가평베네스트)		
				KLPGA 2017 영광CC · Volvik 챔피언스 오픈 9차전 (영광)		KLPGA 2017 제 3차 Kidz 골프 캠프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11	12	13	14	15	16	17
KLPGA 2017 무안CC · 울포유 드림투어 시드순위전 (무안)				BMW Ladies Championship 2017 (스카이 72)		
KLPGA 2017 제2차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4차전 (그랜드)						
18	19	20	21	22	23	24
KLPGA 2017 제2차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5차전 (그랜드)		KLPGA 2017 무안CC · 울포유 드림투어 15차전 (무안)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레이크우드)		
KLPGA 2017 영광CC · Volvik 챔피언스 오픈 10차전 (영광)						
25	26	27	28	29	30	1
KLPGA 2017 제2차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6차전 (그랜드)		KLPGA 2017 무안CC · 울포유 드림투어 16차전 (무안)		팬텀 클래식 With YTN (88)		
KLPGA 2017 영광CC · Volvik 챔피언스 오픈 11차전 (영광)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 <member's service>는 매달 분야별로 6개 업체의
회원혜택을 순서대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영힐스 CC



혜택

KLPGA 회원 1명 내장 시 주중 그린피 69,000원

- ※ 주말, 공휴일은 그린피 할인 없음
- ※ 전화, 모바일, 인터넷 예약 후 이용 가능

기간 | 2017년 9월 ~
대표문의 | 043-850-8600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성중두담길 114
홈페이지 | www.basecc.co.kr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에 위치한 대영힐스(27홀) 골프장은 서울에서 가깝고 가성비가 좋은 골프장으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力(력), 靑(청), 美(미) 세 코스로 다양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으며, 대영베이스(18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두 곳을 한 번에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대영은 베이스(18홀), 힐스(27홀), 알프스(18홀) 세 곳을 운영해 1박 2일, 2박 3일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영힐스 골프장은 더욱 나은 서비스, 직원들의 변치 않는 친절함 미소와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클럽하우스, 스타트하우스, 그늘집에서도 친절함 미소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대접하며 친근함과 친절함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리조트 제주



혜택

KLPGA 회원 주중 1인 그린피 면제

KLPGA 회원 주말 1인 그린피 50% 할인

- ※ 3인 이상 플레이 시 적용
- ※ 사전 전화 예약 필수, 내장 시 회원증 제시 필요

기간 | 2012년 ~
대표문의 | 064-766-7731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록남로 2914
홈페이지 | www.wooridulresort.com

우리들CC는 제주 대표적인 낯사람 지형이자 가장 살기 좋은 돈내코에 위치한 자연 친화골프장입니다. 항상 마르지 않는 계곡과 숲이 여름에 시원함을 전해주고, 금계포단형 지형에 위치하여 눈이 쌓이지 않아 겨울에 따뜻함을 선사하는 기후조건이 우리들CC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북으로는 한라산을 뚜렷하게 감상하실 수 있고 남으로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서귀포 앞바다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은 코스 설계와 어우러져 플레이 내내 역동적인 플레이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CC를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골프

골든베이(한화 골프장)

기간 | 2014년 11월 ~
★ 혜택 |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4인 1팀)의 경우 : KLPGA 회원 25,000원(중식 1식 포함), 동반자 비회원 이벤트가
문의 | 041-671-8000, 8100(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산포로 217

골프존아카데미

기간 | 2012년 12월 ~
★ 혜택 | 정상 판매가격에서 50% 할인(삼성, 목동 지점 제외)
서울: 공덕점, 발산역점, 중계점, 신반포점, 강남점
경기: 서판교점, 행신점, 분당오리점, 정자동, 용인보정점, 김포사우점, 일산마두점, 남양주호평점
담당자 | 엄동환 대리 문의 | 070-8640-6431
기타 | 1일 1회(60분) 이용, 등록 지점에 한함

대영힐스 CC

기간 | 2017년 9월 ~
★ 혜택 | KLPGA 회원 1명 내장 시 주중 그린피 69,000원
※ 주말, 공휴일은 그린피 할인 없음
담당자 | 김다연 사원 문의 | 043-850-8600 / 043-850-8678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성중두담길 114

더 프라자 골프 스튜디오

기간 | 2017년 1월 ~
★ 혜택 | 프라이빗 연습장 할인(전 회원 1만 원 할인, 정규투어 시드권자/시드순위자 1일 2시간 무료), 트랙맨 매뉴얼 무료 세미나(주 1회, 선착순 00명)
문의 | 02-511-6731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8-1 8층

레이크힐스 용인 CC

기간 | 2017년 1월 ~
★ 혜택 | KLPGA 정회원 대상 그린피 50% 할인 적용 : 주중 104,000원 / 주말 126,000원
※ 회원동반 내장 또는 특별 예약신청서 작성
문의 | 031-336-8350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628

롯데스카이힐 CC

기간 | 2017년 6월 ~
★ 혜택 | KLPGA 정회원 및 준회원 내장 시 주중 50% 할인, 주말 30% 할인(1팀 1인 혜택 적용, 개별소비세 별도)
문의 | 제주: 064-731-2020~3, 김해: 055-340-9001~3
부여: 041-939-1701~4
홈페이지 | www.skyhill.co.kr

리앤리 CC

기간 | 2013년 5월 20일 ~
★ 혜택 |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1명, 동반자 3명(4인1팀)의 경우:KLPGA 회원 그린피 50%, 동반자 비회원 이벤트가격 (주중에만 적용)
문의 | 031-580-9000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천계로 702-24
홈페이지 | www.leenleecc.co.kr

무주안성 CC

기간 | 2014년 2월 ~
★ 혜택 | KLPGA 정회원: 그린피 50% 할인, 정회원 간 2인 플레이 가능, KLPGA 준회원 및 티칭회원: 그린피 30% 할인
문의 | 063-320-3215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무로 1535

보성 CC

기간 | 2015년 4월 ~ 2018년 3월
★ 혜택 | 그린피 회원 2명까지 면제, 호텔다향 50% 할인, 레스토랑 20% 할인, 미술관 무료 관람
문의 | 061-804-1000(대표전화)
주소 |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

블루원 상주 골프리조트

기간 | 2017년 8월 ~
★ 혜택 | KLPGA 정회원 1인 동반자 3인(팀당 1인 적용) 정회원 1인(본인) 주중 50% 할인, 준회원 1인(본인) 주중 30% 할인
문의 | 1899-1888
주소 | 경북 상주시 모서면 화현3길 127
홈페이지 | www.blueone.com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기간 | 2016년 7월 ~
★ 혜택 | KLPGA 정회원 1인 동반자 3인 내장, 내장고객 호텔 1박 이상 이용 시 정회원 1인 그린피 무료
문의 | 1644-0280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545

(주)삼일 골프사랑

기간 | 2017년 5월 ~
★ 혜택 | 해외골프 여행, 해외패키지 여행, 하니문 여행 회원가 적용
담당자 | 김중석 과장 문의 | 031-284-7777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402호
홈페이지 | www.골프여행.kr

서원힐스 · 서원밸리

기간 | 2014년 9월 ~
★ 혜택 | [힐스] 대종제 주중 4인 시 본인 50% 할인, 3인 시 본인 2만 원 할인 [밸리] 회원제 22,620원(세금면제)
문의 | 031-940-9400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산48-1

세라지오 CC

기간 | 2013년 8월 12일 ~
★ 혜택 | 1)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25,000원, 주말 105,000원
2) 당사 회원과 동반 내장 시 주중 105,000원, 주말 150,000원
문의 | 031-887-8700(예약실)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530
기타 | 주말 예약은 2주에 한 번(해당일 12일 전 이후 예약 가능)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기간 | 2005년 ~
★ 혜택 | 1) 그린피 할인: KLPGA 정회원, 준회원 및 티칭회원 중 스카이72 GC 인터넷 회원일 경우 예약/내장 시 10% 할인, 주중 바다코스(오션, 레이크, 클래식)
2) 드림골프레인지 할인: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자동차석 30%(주중), 20%(주말) 할인
담당자 | 김형준 매니저 문의 | 1544-7272
홈페이지 | www.sky72.com

스프링베일 GC

기간 | 2017년 8월 ~
★ 혜택 | 1) 주중 18홀 :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그린피 면제 (동반자 3명 내장 시 동일 적용)
2) 주말 18홀 :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그린피 면제(동반자 2명 내장 시 50% 할인)
3) 주중/주말 18홀 : KLPGA 회원 3~4인 내장시 전원 그린피 면제
문의 | 033-254-7900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금베이길 93-27
홈페이지 | www.springvale.co.kr

써닝포인트 CC

기간 | 2016년 3월 ~
★ 혜택 | 1) 그린피 할인: KLPGA 정회원 주중 50%, 주말 30% 준회원 주중 30%, 주말 15%
2) 숙박할인: 1박 기준 2인 1실 6만 원(정회원, 준회원 동일)
문의 | 031-329-0800(예약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51번길 205

오너스골프클럽

기간 | 2014년 3월 ~
★ 혜택 | 주중 정상 그린피의 50% 할인(주말, 공휴일 제외)
문의 | 033-260-1918, 1919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동촌로 667

옥스필드 CC

기간 | 2012년 4월 ~
★ 혜택 | KLPGA 정회원 1명 동반자 3명(4인 1팀) 내장 시 회원 1명 골프장 정회원 대우(그린피 23,000원)
담당자 | 예약실 박성민 문의 | 033-340-7700
주소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경강로유현6길 28

우리들리조트 제주

기간 | 2012년 ~
★ 혜택 | KLPGA 회원 주중 1인 그린피 면제, KLPGA 회원 주말 1인 그린피 50% 할인 (3인 이상 플레이 시 적용)
담당자 | 강유진 프로 문의 | 064-766-7731 / 010-9162-0207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록남로 2914

인터볼고강산

기간 | 2014년 10월 ~
★ 혜택 | 해당일 5일 전부터 잔여 타임에 한해 시행, 해당일 5일 이전 예약 요청 시 팀 당 50% 1명 할인
문의 | 1544-4222(예약실)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삼성현로 614-26

증원골프클럽

기간 | 2015년 9월 ~
★ 혜택 | 지방 행정 공제회에 가입되어있는 회원과 회원의 배우자 그린피 30% 할인
문의 | 042-849-8000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인동로 392

캐슬렉스 제주 CC

기간 | 2015년 4월 ~
★ 혜택 | 1) 회원 동반자 그린피 할인
2) 골프텔 객실 할인, 제주도 대회 참가 프로 예약 시 객실료 별도 협의 가능
3) 골프장 및 객실 이용 시 연습장 할인(1바구니 5천 원)
담당자 | 주흥성 영업총괄팀장
문의 | 064-793-6600 / 010-2697-0001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1241

타니 CC

기간 | 2012년 ~
★ 혜택 | KLPGA 정회원 본인 그린피 할인(주중 6만 원)
문의 | 055-831-7010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흥신로 210
기타 | 할인 혜택은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파인비치골프프링스

기간 | 2017년 6월 ~
★ 혜택 | KLPGA 회원 50% 할인 ※ 동반자 할인 없음
담당자 | 문창식 팀장 (061-530-7721)
문의 | 예약실 061-530-7722~3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시아로 224

포천힐스 CC

★ 혜택 | 비회원 3인 동반 내장 시 주중, 주말 1~2부에 한해 프로 1인 면제 혜택 적용
※ 야간라운드 제외
문의 | 031-538-7000

한성 CC

기간 | 2015년 3월 ~
★ 혜택 | 주중 1부(07:30 이전)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면제(4인 1팀 기준)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32-1

해비치 CC 제주

기간 | 2017년 9월 ~
★ 혜택 | KPGA 회원 그린피 할인혜택 적용 (프로 1명, 비회원 3명까지 적용 가능)
담당자 | 이현도 지배인 문의 | 064-766-6207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원남로399번길 319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기간 | 2015년 6월 12일 ~
★ 혜택 | 주중 1부 야마추어 3인 동반 시 프로 1인 그린피 50,000원 야마추어 2인 동반 시 프로 2인 그린피 65,000원
문의 | 051-726-0752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74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비치 CC 제주



혜택

KPGA 회원 골프장 이용 시 그린피 할인 적용
(프로 1명과 비회원 3명까지 골프장 회원 요금 적용 가능)
※ 사전 예약 시 전화 예약 필수

기간 | 2017년 9월 ~
대표문의 | 064-766-6207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원남로399번길 319
홈페이지 | www.haevichi.com

해가 처음 비추는 곳이라는 뜻의 해비치호텔&리조트
제주는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눈
에 펼쳐지는 제주 동부권에 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 종합 휴장 리조트로서 36홀 골프장 및 최고급 호
텔&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비치CC 제주는 하와이와 영국 세이튼 앤드류스 콘
셉트로 조경하였으며, 라운드 내내 모험심을 자극하는
역동적인 코스와 섬세한 기술의 샷을 필요로 하는 정교
한 코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티잉 그라운드와 페어
웨이 그린을 서양 잔디로 조성하여 겨울철에도 눈이 쌓
이지 않아 사계절 내내 푸른 잔디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레드캡투어



혜택

1) 레드캡투어의 믿을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임직원 본인,
가족 및 지인에게 소개해드리는 임직원 전용
여행Mall 제공
2) 일반 여행 상품 최대 9% 할인
3) 허니문 최대 10% 할인
4) 직계가족 대리예약 등 무이자 혜택 서비스

기간 | 2012년 9월 ~
대표문의 | 02-2001-4697
담당자 | 레드캡투어 마케팅팀
홈페이지 | member.redcaptour.com

레드캡투어는 '고객은 누구라도 최상의 귀빈'이라는 정
신으로 '다시 가고 싶은 여행, 잊지 못할 여행, 앞서가
는 여행'을 만들어갑니다. 여행을 통한 행복과 보다 풍
요로운 삶을 위해서 Redcap만의 특별한 서비스로 언
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레드캡투어는 KPGA 회원
분들이 더욱 알뜰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외패키
지여행 상품을 임직원 본인은 10%, 가족 및 지인은 5%
상시 할인가로 제공해드립니다. 홈쇼핑 방영 상품, 국
내외 골프 여행 상품 등 각 지역별로 다양한 상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허니문 상품, 장·단
거리 크루즈 상품뿐만 아니라 제주 단기 렌터카도 할인
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드캡투어와 함께
잊지 못할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힐드로사이 CC

기간 | 2014년 8월 ~
★ 혜택 | K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5만 원(4인 1팀 기준)
문의 | 033-439-3333(유선 예약만 가능)
주소 |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1288

360도 CC

기간 | 2014년 1월 ~
★ 혜택 | K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주중 50% 할인(4인 1팀
기준), 1일 1회 본인에 한하여 주중 잔여 타임에만 가능
담당자 | 윤준섭 주임
문의 | 031-880-3612 / 031-880-3600(대표전화)
주소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산59-3

서울미소진치과

기간 | 2016년 12월 ~
★ 혜택 | KPGA 회원 및 임직원(직원가족 포함)을 위한 비보험
치과치료 할인 혜택 제공,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분석 및 고정 분석 (CT 포함) 제공
담당자 | 박선미 실장 문의 | 02-515-2875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92길 29 8층

서울위드치과

기간 | 2014년 2월 ~
★ 혜택 | 회원 및 가족 대상, 비보험 치료 10~20% 할인
담당자 | 정홍주 부장 문의 | 010-7795-0515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10번길 19, 4층(서현동, 센트로빌딩)

세브란스체크업

기간 | 2017년 8월 ~
★ 혜택 | 세브란스체크업 검진비30% 할인(선택검사 포함)
※ 사전예약제
문의 | 1588-7757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4층
홈페이지 | www.sev.iseverance.com

올림픽병원

기간 | 2017년 5월 ~
★ 혜택 | 1) 올림픽병원 모든 진료과목
(정형외과, 내과, 치과, 피부과, 물리치료) 정회원, 준회원,
티칭 회원, 임직원 및 직계가족 비급여 20% 할인
2) 피부과 레이저토닝 1회 무료
3) 출인원 검진(정상가 105만 원)
남자 30만 원, 여자 35만 원 제공
4) 체외충격파 치료 30% 할인
5) 해당연도 드림투어 디비전별 상금 1위 선수
도수치료 50% 할인
문의 | 02-2038-3147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4-10번지 올림픽병원
홈페이지 | www.olympichospital.co.kr



의료

강남 베스트성모안과

기간 | 2016년 1월 ~
★ 혜택 | 1) 베이직 라식/라섹: 120만 원 → 59만 원
2) 양막 라식/라섹: 160만 원 → 79만 원
3) 올레이저 라식/라섹: 200만 원 → 89만 원
4) 미도 라섹: 220만 원 → 99만 원
5) 아베트로 엑스트라 라섹: 300만원 → 담당자 문의
담당자 | 윤형준 실장 문의 | 010-9771-8690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4-9 송촌빌딩 14층(역삼역 6번 출구)

서울메디케어

기간 | 2014년 10월 ~
★ 혜택 | K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건강검진 서비스
1) 종합검진비 20% 감면, 비급여검사비 20% 감면
2) 연계진료 필요 시 상급종합병원 진료 의뢰 진행
의료혜택항목: MRI, MDCT, 초음파, 위대장내시경 등
비급여 영상검사 외
문의 | 1644-0336
홈페이지 | www.seoulmedicare.com

이스턴 치과의원

기간 | 2012년 11월 ~
★ 혜택 | 구강검진 및 상담, 치료 및 사후 관리,
진료 및 수술비용 할인
담당자 | 김미경 진료실장 문의 | 02-553-2804

하늘안과의원

★ 혜택 | 안구 정밀검진 및 라식, 라섹, 렌즈삽입,
노안 수술 희망 시 제휴할인
※담당자를 통해 예약하셔야 제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02-573-9779 (사전예약제로 운영)



생 활 문 화

골든튤립 인천공항 호텔&스위트

기간 | 2017년 7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혜택 | 스탠다드 쿤/트윈 (2인 1실) : 230,000원 → 100,000원
(세금 및 봉사료 별도, 조식 불포함)
조식 (사전 예약 시) : 성인 25,000원 → 15,000원,
7세~13세 15,000원 → 10,000원 (세금 및 봉사료 별도)
담당자 | 이호경 지배인 문의 | 032-727-6000
주소 | 인천시 중구 흰바위로 59번길 8
골든튤립 인천공항 호텔&스위트
홈페이지 | www.goldentuliphotel-icn.com

군산 오스카스위트 호텔

기간 | 2017년 1월 ~
★ 혜택 | 디럭스더블/트윈(2인1실) 120,000원 → 주중 50%할인
(VAT포함, 조식별도)
담당자 | 민구 지배인 문의 | 063-464-0505~7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1길 55
홈페이지 | www.oscarhotel.kr

그랜드컨벤션센터

기간 | 2013년 6월 ~ (선착순 50팀)
★ 혜택 | KPGA 회원 각 직계 부모, 자녀 예식, 고회연,
돌잔치 할인(계약 순서에 따라 50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58

금호리조트

기간 | 2015년 4월 ~
★ 혜택 | KPGA 전체 회원 및 직계 가족 객실 할인 혜택
문의 | 02-737-5400(예약실)
기타 | KPGA 회원혜택 해당란을 통해 예약 진행(유선예약 가능)

까라디

기간 | 2012년 9월 ~
★ 혜택 | 헤어, 메이크업 관련 모든 서비스, 정가의 50% 할인
문의 | 02-545-4000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17 제성빌딩

캐스텔바작

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혜택 | KPGA 회원 대상 30% 할인
담당자 | 길강한 문의 | 02-3498-0407
홈페이지 | www.castelbajackorea.com

라마다 서울호텔

기간 | 2017년 ~
★ 혜택 | KPGA 회원 대상 객실 특별가 70% 할인
(12/24, 25, 31 제외), 스파&사우나 50% 할인,
연회&미팅 이용 시 대관 50%, 식료 10%, 음료 30% 할인
(세금 10%, 봉사료 10%가 별도로 부가)
문의 | 02-6202-2000 / 02-6202-2054(판촉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2-5번지

레드캡투어

기간 | 2012년 9월 ~
★ 혜택 | 일반 여행 상품 최대 9% 할인, 허니문 최대 10% 할인,
담당자 | 레드캡투어 마케팅 팀 문의 | 02-2001-4500
기타 | 신규 KPGA 회원의 경우 상단 연락처로 문의, 기존 KPGA
회원의 경우 ID 및 패스워드는 KPGA 사무국으로 문의

레보 선글라스

기간 | 2016년 7월 ~
★ 혜택 | KPGA 회원 전체품 30% 할인
담당자 | 노연서 대리 문의 | 070-4291-8383
홈페이지 | www.revokorea.com

메디 필라테스

기간 | 2015년 6월 ~
★ 혜택 | KPGA 회원 본인 및 가족 30% 할인
담당자 | 박혜지 프로 문의 | 031-602-7840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SK허브 C동 105호
홈페이지 | blog.naver.com/medipila1

(주)모리앤

기간 | 2017년 9월 ~
★ 혜택 | 모리앤 헤어샴푸, 헤어토닉 제품 35% 할인
담당자 | 한혜주 과장 문의 | 051-929-6916 / 051-9733-9733
홈페이지 | www.ks1004.kr
기타 | 본사 쇼핑물 및 전화 주문 구매 문의 080-850-9733
카카오톡 문의 moreturn

범양글러브

기간 | 2016년 7월 ~
★ 혜택 | 스카치글러브 45% 할인, 할인행사기간 중
전제품 최대 80% 할인, 추가쿠폰 할인행사
담당자 | 윤정안 실장 문의 | 070-7117-2117
쇼핑몰 | www.kglove9.com

세계골프역사박물관

기간 | 2014년 10월 ~
★ 혜택 | KPGA 회원 세계골프역사박물관 관람 시 무료 입장
(인포데스크에서 별도 요청 시 무료 도슨트 투어 가능)
담당자 | 이동은 학예사 문의 | 02-2192-3005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8 슈페리어타워 지하2층
기타 | KPGA 회원임을 밝혀주시고,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세빌스 호텔 군산

기간 | 2015년 5월 ~
★ 혜택 | 슈퍼리얼 더블/트윈 (2인 1실) : 198,000원 → 99,000원
(VAT포함, 조식 별도), 조식(사전 예약 시) :
성인 1인 15,000원 → 11,000원, 5세~13세 7,500원
담당자 | 최한나 지배인 문의 | 063-730-8000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462-1

아바쿠스 골프웨어

기간 | 2016년 10월 ~
★ 혜택 | K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신상품 40%,
과년도 50% 할인
담당자 | 영업부 최재형 차장 문의 | 02-552-1584
홈페이지 | www.abacugolf.co.kr

(주)와룡산업 와플케어 개인용 온열기

기간 | 2014년 12월 ~
★ 혜택 | 개인용 온열기 전제품 30% 할인
(본사 홈페이지 및 전화 주문 구매)
의료용(2인용): 소비자가 700,000원 → 할인가 490,000원
의료용(1인용): 소비자가 550,000원 → 할인가 385,000원
고급형(2인용): 소비자가 550,000원 → 할인가 385,000원
고급형(1인용): 소비자가 450,000원 → 할인가 315,000원
실속 2인용: 소비자가 500,000원 → 할인가 350,000원
투어용: 소비자가 350,000원 → 할인가 245,000원
소파용: 소비자가 250,000원 → 할인가 175,000원
방석: 소비자가 120,000원 → 할인가 84,000원
배달개: 소비자가 150,000원 → 할인가 105,000원
담당자 | 김선옥 실장 문의 | 031-977-8774
홈페이지 | www.waplecare.com
기타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어 KPGA 가입
본 혜택은 KPGA회원에 한하며, 이용 시 반드시 회원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턴인터내셔널호텔

기간 | 2016년 9월 ~ 2017년
★ 혜택 |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연간 동일한 가격 혜택
문의 | 032-747-3301 / 070-4510-6241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9번길 47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주)모리앤



혜택

모리턴 헤어샴푸, 헤어토닉 제품 35% 할인
※ 회원가입 후 재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으로 모리턴 제품이 35% 할인 적용 됩니다.

기간 | 2017년 9월 ~
대표문의 | 051-929-6916 / 051-9733-9733
신청방법 | 모리턴몰 가입 시 추천인란에 'klpga'를 소문자로 가입-재로그인
※ 회원가입 및 전화 주문 시 문의 080-850-9733
홈페이지 | www.moreum.co.kr

(주)모리앤 본사내에 두피탈모 전문관리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풍부한 두피관리 임상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저자극 약산성 샴푸 & 두피에센스 헤어토닉 '모리턴'은 국내산 한약재인 홍삼·당귀·황기와 먹는 천연 식이유효성이 주요성분으로 두피에 영양을 빠르게 침투시키는 미세구조를 띄고 있어 효율적인 영양공급이 가능합니다. 모리턴 샴푸와 헤어토닉은 2012년부터 6년 연속 한국표준협회(KSA) '으뜸상품'이며 국제인증기관인 미국 FDA와 중국 CFDA에 각각 등록되어 있으며, (주)모리앤은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KLPGA 2017 모리턴·원일건설 챔피언스 오픈'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KLPGA회원들이 경기전후 자외선노출과 장시간 모자착용으로 인한 모발과 두피손상을 모리턴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청풍리조트



혜택

1) 객실 주중 50~55%, 주말(연휴) 40~46% 할인
2) 부대업장 사우나 및 수영장 50% 할인
※ 사전 예약 시 전화 예약 필수

기간 | 2017년 9월 ~
대표문의 | 043-640-7000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1798
홈페이지 | www.cheongpungresort.co.kr

한방의 도시 충청북도 제천의 청풍호반에 위치한 청풍리조트는 금수산과 월악산의 아름다운 능선이 펼쳐지고 청풍호반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평화로운 여유를 느끼며 몸을 맡길 수 있는 휴식 같은 공간입니다. 청풍리조트는 청풍호가 내려다보이는 객실과 레스토랑, 연회장,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스포츠 시설, 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고객님에게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제공합니다.

웰리힐리파크(구.성우리조트)

기간 | 2012년 12월 1일 ~
★ 혜택 | 객실이용 시 기간별 특별요금으로 제공
문의 | 1544-8833(ARS 1번)
홈페이지 | www.wellihillipark.com/partnership

제주 빌라 드 애월

기간 | 2015년 6월 ~
★ 혜택 | 객실로 50% 할인(풀빌라 제외)
문의 | 064-720-9013
주소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516-7

제주센트럴시티호텔

기간 | 2016년 7월 ~ 2018년 6월
★ 혜택 | 1) 객실할인: 주중 100,000원 / 주말·연휴 110,000원
2) 조식할인: 회원 본인 10,000원 / 동반 고객 15,000원
3) 렌터카 업체 연계 차량 렌탈 할인 서비스 제공

담당자 | 김창근 부장
문의 | 064-800-2603 / 010-6690-0796
주소 | 제주 제주시 노연로 66

제주 항공우주호텔

기간 | 2017년 8월 ~
★ 혜택 | 1) 7/1 ~ 8/31 객지해수욕장 캠프시설 무료 이용 가능
※ 캠프시설 샤워시설, 개인탁자, 비치침대, 평상 이용 가능
2) 항공우주박물관 야외 어린이놀장(에어바운스) 무료 이용 가능 ※ 호텔 투숙 시 무료 이용 가능
3) 호텔 09:30분, 해수욕장 17:30분 출발서를 이용 가능
문의 | 064-798-5500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6
홈페이지 | www.jash.co.kr

청풍리조트

기간 | 2017년 9월 ~
★ 혜택 | 객실 할인 주중 50~55%, 주말(연휴) 40~46% 할인 / 사우나 및 수영장 50% 할인
담당자 | 황기정 팀장 문의 | 043-640-7000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1798
홈페이지 | www.moreum.co.kr

캘러웨이 어패럴

기간 | 2017년 8월 ~
★ 혜택 | 캘러웨이 어패럴 전국 매장에서 30% 할인 구매 가능
※ KLPGA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 매장에서 회원 등록 및 회원번호 제시 필요 (연간 구매 수량 10개에 한해 적용)
문의 | 02-2211-1343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280
홈페이지 | www.callawayapparel.co.kr

크로체나인

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혜택 | KLPGA 회원 모든 시술 50% 할인, 회원가족 시술 30% 할인
담당자 | 명상 부원장 문의 | 02-517-4711
홈페이지 | www.croce9.com

타미카퍼

기간 | 2016년 12월 ~
★ 혜택 | 타미카퍼 기능성 보호대 및 의류 전 품목 정상 소비자가 대비 30% 할인
담당자 | 김지은 마케팅 팀장 문의 | 070-4277-3134
홈페이지 | www.tommiecopper.co.kr

호텔락히 청주점

기간 | 2017년 ~
★ 혜택 | KLPGA 회원을 대상으로 객실 할인 (성수기 및 특수기 별도 요금 적용, 조식 미포함)
담당자 | 박인수 팀장 문의 | 043-909-50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동로 47-2
홈페이지 | www.hotellackey.com

LF (구 LG fashion)

기간 | 2017년 5월 ~
★ 혜택 | 헤지스, 닥스골프 정상소비자가 대비 40% 할인 (한도 200만 원) ※ 단, 포인트 적립은 불가
※ 기타 할인권/카드/판촉 행사/금액권 중복적용 불가
※ LF몰 및 KLPGA 홈페이지(생활, 문화 서비스 확인필요)
담당자 | 온라인 골프 담당 박소연 사원 문의 | 02-6920-3551
홈페이지 | www.lfmall.co.kr



교육

KLPGA 회원진로서비스 (인·적성/직무능력검사)

★ 혜택 | KLPGA 전 회원 무료(검사비 + 해설비)
1) 검사방법: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 후 검사 진행
2) 검사시간: 총 110분(인·적성 검사 298문항, 직무능력 검사 70문항)
3) 검사결과: 1주일 내로 개별 이메일 발송(KMA에서 전달), KMA로 연락시 결과 해석 및 개별 상담 가능
4) 참가신청
- KLPGA 홈페이지 정보센터 → 회원혜택 → 교육서비스에서 공지 확인 후 교육 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 개별적으로 검사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발급
- 홈페이지 검사사이트 링크(klpga.kma.or.kr) 접속 → 발급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검사 진행

담당자 | KLPGA 이선택 대리
문의 | 02-560-4424 / lsjd@klpga.com

파고다 어학원

기간 | 2016년 4월 1일 ~
★ 혜택 | KLPGA 회원 매달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오프라인 70% 할인, N파고다(온라인) 2강좌 무료 수강, 파고다 스타(온라인) 50% 할인
<오프라인 강좌 70% 할인>
• 파고다 어학원 4개 지점(강남점, 종로점, 신촌점, 부산점)
• 각 지점별 등록 시 직접 방문 신청 (KLPGA 회원증 지참 필수)
※ 수강 가능 연령 제한 없음
<온라인 강좌 N파고다 2강좌 무료 수강>
• KLPGT 홈페이지 → 멤버존 → 외국어교육 배너 클릭 후 수강 등록
<온라인 강좌 파고다 스타 50% 할인>
웹주소 : www.pagodastar.com 가입 후 수강 등록
신청기간 | 매월 15일 ~ 30일
담당자 | 파고다 고영순 대리 문의 | 02-6907-2867
기타 | 수업(온라인, 오프라인) 진도를 70% 미달일 경우 1년간 지원

중단, 본인이 아닌 대리인(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 한 모든 사람) 수강이 적발될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지원 영구 중단

파고다 SCS(전화외국어)

기간 | 2016년 1월 ~
★ 혜택 | KLPGA 회원 무료 전화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1) 모집인원: 70명(영어 50명, 일본어 10명, 중국어 10명)
우선순위: 1순위(신규 신청자), 2순위(기존 신청자)
2) 교육기간: 매주 월~금(주 3회 교육) / 매일 06:00~24:00 중 선택
3) 교육지원
- 주3회 10분 교육, 매일 교육비 100% 협회 지원 (1인당 약 60,000원)
- 파고다 홈페이지 사이버강의 무료 수강
4) 지원기간: KLPGA에서 개인별 최대 4개월(총 48회) 지원
5) 신청방법: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담당자 E-Mail 또는 Fax로 발송
- E-Mail: lsjd@klpga.com / Fax: 02-539-6003

담당자 | KLPGA 이선택 대리
문의 | 02-560-4424 / 010-4599-4553
홈페이지 | klpga.npagoda.com/user/main
기타 | 1) 70% 이상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 자동 지원 중단되며, 출석을 미달 시점을 기산 월로 차후 1년간 전화영어교육 지원 중단(수업 연기 불가)
2) 매달 지원중단자에 대한 공석은 대기순위자로 대체 (신규모집 시 대기순위 부여)

한국능률협회 (회원인문소양교육)

기간 | 2017년 8월 ~ 2018년 7월
★ 혜택 | KLPGA 회원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원 및 한국능률협회 교육 신청 시 할인(기타혜택)
1) 교육대상자: KLPGA 회원
2) 교육형태: 매월 1회
3) 교육프로그램: 리더스모닝포럼(서울)
4) 모집인원(선착순 모집)
- 리더스모닝포럼 : 선착순 20명 예정
※ 우선순위: 1순위(신규 신청자), 2순위(기존 신청자)

5) 교육기관: 한국능률협회
6) 교육지원
매 월 1회 한국능률협회에서 진행되는 포럼 참가 및 참가비 100% 협회 지원(1인당 약 200,000원)
7) 신청방법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로 신청
-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E-MAIL 또는 FAX로 발송
- E-MAIL : lsjd@klpga.com / FAX : 02-539-6003

■ 기타혜택
1) KLPGA 회원 한국능률협회 교육 신청 시 최대 20% 할인
- 공개교육(계층, 리더십, 공통, HRD, 직무, 글로벌 과정, KMAC 직무과정)
- 사이버교육(계층, 리더십, 조직, 경영, 영업, 금융, 유통, 제조, 건설, 의료 과정)
- 컨퍼런스(트렌드 세미나)
※ 홈페이지 참조 www.kma.or.kr
2) 기타 세미나 초청(명품지식 콘서트, HRD 특별 컨퍼런스, KMA 프로포즈 데이)

담당자 | KLPGA 이선택 대리
문의 | 02-560-4424 / 010-4599-4553
기타 | 1) 매월 교육프로그램 및 일정 안내: KLPGA뉴스 게시판에 공지
2) 사전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차후 1년간 교육 지원 중단
3) 교육 전 취소사 발생 시 차순위자로 대체



금융

하나카드

기간 | 2008년 ~
★ 혜택 | KLPGA 플레티늄 카드 부가서비스
1) 신규 발급 시 초년도 10만 원, 이후 2년 차부터 연회비 평생 면제
2) 할부 가능한 전기·냉방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

3)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PriorityPassCard 발급)
- 플레티늄 카드에 한해 본인/가족 카드 자동 발급
4) 인천공항 허브 라운지 할인 서비스: 플레티늄카드 소지 고객 본인 20% 할인
5) 여행상품 할인서비스
- 지정 예약차: 02-714-3434
- 국제선 항공권 7%, 국내선 5%, 해외패키지 7% 할인
6) 발레파킹: 인천공항 월 3회(주차비별도), 특급호텔 월 3회(1일 3시간 무료주차)
7) 특급호텔: 10~30% 할인 서비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롯데호텔, 밀레니엄 서울 힐튼 등)
8) S-OL 리더당 50원 할인(LPG제외), 횡수 무제한 -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교환시 할인(2만5천 원)
9) 영화 할인 서비스(통합 월 1회): CGV, 메가박스, 인터파크, 티켓팅 등
10) 놀이공원 할인 서비스(통합 연 4회):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롯데월드, 대전꿈돌이랜드 등
11) 보형: 해외여행 최고 5억 원, 휴일교통상해보험 최고 7천5백만 원

담당자 | 하나카드 플레티늄 고객센터
문의 | 080-220-5300
기타 | 1) 2014년 6월 1일 신규 발급부터는 캐쉬백 적립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차년도부터는 면제됩니다.
3) 하나카드 신규 발급 시에만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며, 기존에 하나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 중 KLPGA 플레티늄 카드를 신청하시면 별도의 연회비는 없습니다.

세무법인 다현

기간 | 2016년 12월 1일 ~
★ 혜택 | KLPGA 협회원과 임직원(가족 포함) 대상, 각종 세무상담 무료 / 기타서비스는 실비로 제공
※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김가성 세무사
문의 | 02-516-7745

2017 TOUR SCHEDULE

03

March

04

April

05

May

06

June

07

July

08

August

09

September

10

October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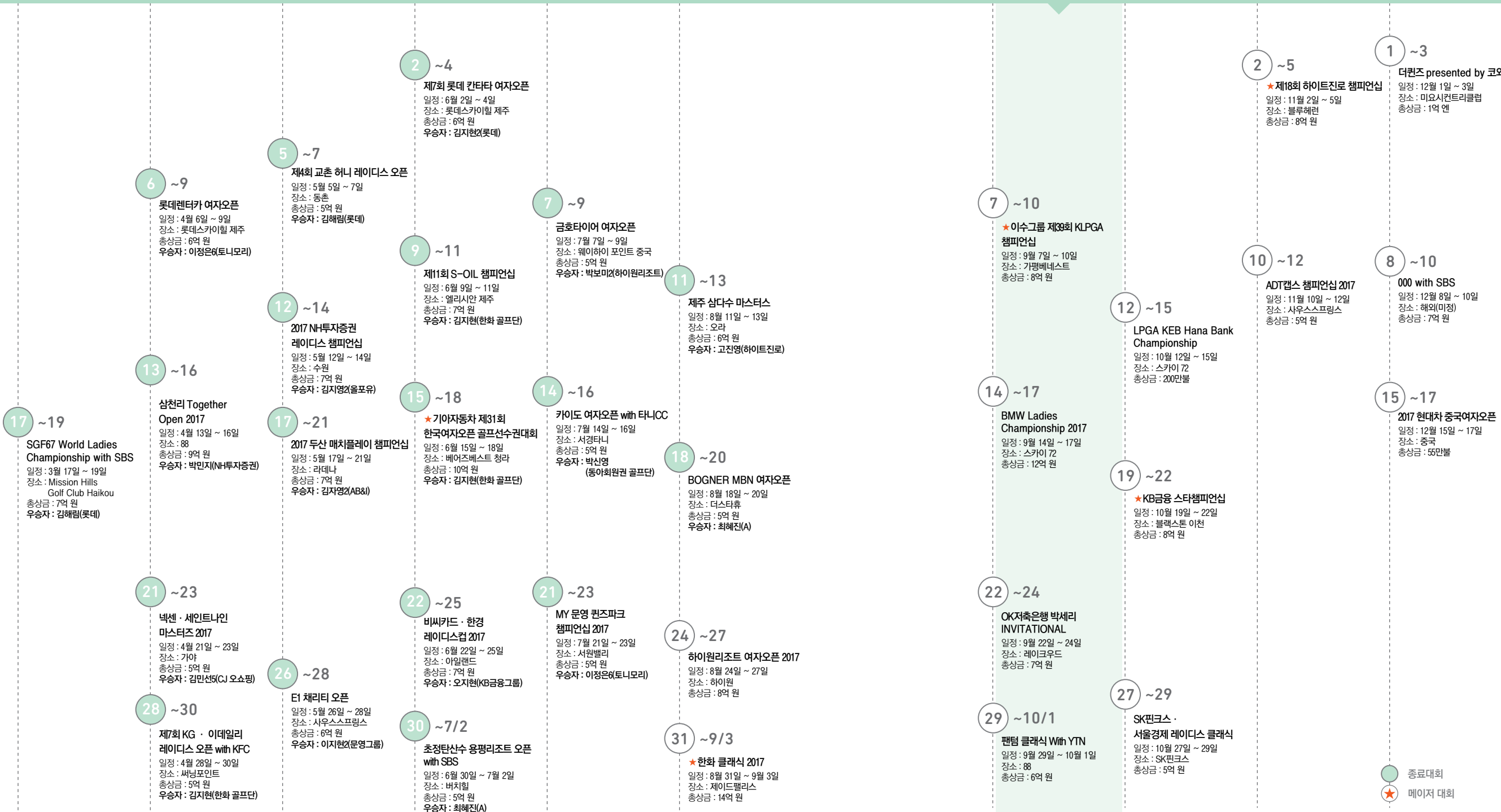
November

12

December



BOGNER MBN 여자오픈 종료시점



대상포인트

순 위	이름	포인트
1	이정은6	362
2	김해림	306
3	김지현	255
4	김민선5	198
5	고진영	178

up VISION 상금순위

순 위	이름	상금
1	김지현	687,207,674
2	이정은6	609,055,035
3	김해림	519,392,333
4	김지현2	356,032,732
5	김민선5	347,136,364

NH투자증권 신인상 포인트

순 위	이름	포인트
1	박민지	1153
2	장은수	987
3	김수지	598
4	전우리	464
5	유효주	360

평균타수

순 위	이름	평균타수
1	이정은6	69.65
2	고진영	69.72
3	김해림	70.07
4	김지현	70.59
5	배선우	70.70

평균퍼팅

순 위	이름	평균퍼트수
1	조정민	29.42
2	김혜윤	29.49
3	오지현	29.58
4	안송이	29.60
5	나다예	29.65



	April 04	May 05	June 06	July 07		August 08	September 09	October 10	November 11	
1						1	일정 : 7월 31일 ~ 8월 1일 총상금 : 3천만 원	장소 : 현대솔라고CC 우승자 : 김스텔라 (S)		
2						2	KLPGA 2017 엑스페론·백제CC 드림투어 11차전 일정 : 8월 2일 ~ 3일 총상금 : 6천만 원	장소 : 백제 컨트리클럽 우승자 : 최예림		
3						3				
4						4		KLPGA 2017 제2차 그랜드· 상대인 점프투어 13차전 일정 : 9월 4일 ~ 5일 총상금 : 3천만 원		
5						5				
6						6				
7						7	KLPGA 2017 아바쿠스· 유림골프클럽 점프투어 with 현대솔라고 11차전 일정 : 8월 7일 ~ 8일 장소 : 휘닉스평창 총상금 : 7천만 원	LPGA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2017 6차전 골드부/그린부 일정 : 8월 7일 ~ 8일 장소 : 스카이벨리 총상금 : 2억 원	KLPGA 2017 영광CC· Volvik 챔피언스 오픈 9차전 일정 : 9월 7일 ~ 8일 총상금 : 6천만 원	
8						8	장소 : 강지선 (S)	우승자 : 이영미/김서윤 (S)		
9						9	KLPGA 2017 엑스페론·백제CC 드림투어 12차전 일정 : 8월 9일 ~ 10일 총상금 : 6천만 원	장소 : 백제 컨트리클럽 우승자 : 지영민		
10						10				
11						11				
12						12		KLPGA 2017 제2차 그랜드· 상대인 점프투어 14차전 일정 : 9월 12일 ~ 13일 총상금 : 3천만 원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KLPGA 2017 엑스페론· 백제CC 드림투어 13차전 일정 : 8월 16일 ~ 17일 장소 : 백제 컨트리클럽 총상금 : 6천만 원	LPGA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2017 7차전 골드부/그린부 일정 : 8월 16일 ~ 17일 장소 : 스카이벨리 총상금 : 2억 원		
18						18	우승자 : 조윤정	우승자 : 송윤경/이광순		
19						19				
20						20				
21						21	KLPGA 2017 아바쿠스· 유림골프클럽 점프투어 with 현대솔라고 12차전 일정 : 8월 21일 ~ 22일 장소 : 현대솔라고CC 총상금 : 3천만 원	KLPGA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2017 8차전 골드부/그린부 일정 : 8월 21일 ~ 22일 장소 : 스카이벨리 총상금 : 2억 원	KLPGA 2017 영광CC· Volvik 챔피언스 오픈 10차전 일정 : 9월 18일 ~ 19일 장소 : 영광 총상금 : 7천만 원	
22						22	우승자 : 박수진(S)	우승자 : 이오준/김선미		
23						23				
24						24	KLPGA 2017 엑스페론· 백제CC 드림투어 14차전 일정 : 8월 23일 ~ 24일 총상금 : 6천만 원	장소 : 백제 컨트리클럽 우승자 : 박시우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미리 둘러보는

9월 KLPGA투어

이수그룹 제39회 KLPGA 챔피언십



‘이수그룹 제39회 KLPGA 챔피언십’이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가평에 위치한 가평베네스트 골프클럽(파72/6,538야드)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올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로 우승 시 KLPGA 정규투어 4년 시드권과 70포인트의 대상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1978년 이후 39년 동안 개최되어온 ‘이수그룹 제39회 KLPGA 챔피언십’은 KLPGA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당대 KLPGA를 대표했던 선수들이 거쳐 간 이 무대는 명승부가 연출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5시즌 4번의 연장전 끝에 역전승을 거두며 5년 만에 승수를 더한 안신애, 2016시즌 난항을 겪었던 컨디션으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기록한 배선우 등이 대회의 우승컵은 항상 극적인 순간과 함께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선수가 감동의 스토리와 함께 우승컵을 품에 안을지 기대가 된다.

‘이수그룹 제39회 KLPGA 챔피언십’은 총상금액 8억 원의 규모로 가평베네스트 골프클럽 버치 코스(OUT)와 메이플 코스(IN)에서 열린다.



가평베네스트 골프클럽은 가평 개주산 자락에 위치해 하늘에 맞닿을 듯 한 산세로 자연의 품에 안긴 것 같은 풍광을 자랑한다. 사계절의 다채로운 변화를 감상

할 수 있는 가평베네스트 골프클럽의 모든 코스는 자연지형을 살리도록 설계되었으며 메이플 코스와 파인 코스, 버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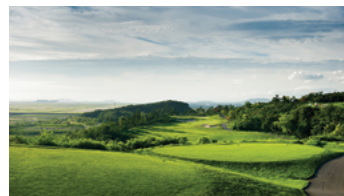
BMW Ladies Championship 2017



‘BMW Ladies Championship 2017’이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스카이 72 골프클럽(파71/6,512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2015년 처음으로 개최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NH투자증권 신인상 포인트’, ‘KLPGA 투어 발렌타인 대상 포인트’ 등 각종 포인트를 메이저 대회와 동일하게 얻을 수 있어 순위 경쟁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지난 대회에서 챔피언을 차지한 고진영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시즌 2승을 기록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여할 고진영은 이번 대회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면 다시 한번 이 대회를 통해 다승을 기록하게 된다. 매년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하고 있는 ‘BMW Ladies Championship 2017’에서 고진영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BMW Ladies Championship 2017’은 총상금액 12억 원의 규모로 스카이 72 골프클럽 하늘A 코스(OUT)와 하늘B 코스(IN)에서 펼쳐진다.



스카이 72 골프클럽은 12만 평의 부지에 72개의 홀들이 조각처럼 꾸며진 골프클럽이다. 스카이 72 골프 클럽은 푸른 바다와 인천대교, 자연 그대로의 암반이 절경을

선사하는 하늘 코스, 습지를 따라 조성된 홀들이 전략적인 플레이를 요구하는 레이크 코스, 완만한 언틀레이션으로 자연미를 살린 클래식 코스, 페어웨이를 따라가는 긴 벙커와 마운드가 코스의 묘미를 더하는 오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첫 주부터 성대한 막을 올리는 메이저 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투어에 박차를 가하는 9월, 선수들의 순위경쟁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다. 생애 첫 우승자부터 다승까지 매주 새로운 진기록이 펼쳐지고 있는 KLPGA 하반기 투어를 미리 엿보는다.

글 _ 박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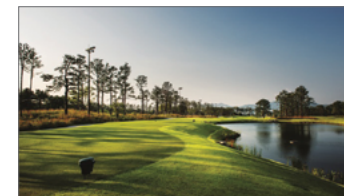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파72/6,628야드)에서 개최된다. 2010년부터 개최되어 온 이 대회는 박세리 선수의 후원과 함께 KLPGA투어 최초로 선수의 이름을 내건 대회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올시즌으로 8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초대챔피언 김혜윤을 시작으로 이승현, 김하늘, 장하나, 이민영2, 박성현, 김민선5 등 스타플레이어들의 우승으로 또 다른 꿈의 무대로 불린다.

이번 대회에서 디펜딩 챔피언으로 김민선5가 출전해 타이틀 방어에 나설 예정이며, LPGA에서 돌아온 장하나가 함께 출전한다. 역대 우승자인 장하나가 챔피언의 자리를 탈환해 2017 KLPGA투어 첫 승을 기록할지 기대된다. 더불어 지난 대회에서 한 타자로 아쉽게 우승컵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조운지, 이민영2의 선전 또한 주목해 볼만하다.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의 총상금액은 1억 원 증액된 7억 원 규모로 열리며,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의 산길 코스(OUT)와 숲길 코스(IN)에서 펼쳐진다.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은 1972년에 설립되어 오랜 전통과 품격을 자랑하는 명품 골프장이다.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의 코스는 크게 레이크 코스와 우드 코스로 나

뉜다. 코스의 전장이 짧지만 변별력을 주는 홀이 녹아있어 방심할 수 없는 레이크 코스는 물길 코스와 꽃길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저드 대신 그린의 난이도를 높인 우드 코스는 산길 코스와 숲길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09 KLPGA TOUR SEPTEMBER

팬텀 클래식 With YTN



‘팬텀 클래식 With YTN’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용인에 위치한 88 컨트리클럽(파72/6,554야드)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째에 접어든 이 대회는 호쾌한 장타로 우승을 차지한 이정민과 장하나 그리고 돌아온 엄마 골퍼 홍진주의 우승으로 골프팬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대회에서 홍진주는 10년 만에 우승을 기록하는 드라마를 보여주었다. 베테랑의 자력을 뽐낸 그는 3차례의 걸친 연장전 끝에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디펜딩 챔피언으로 나설 그가 타이틀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해보자. 또한 연장전에서 파 세이브를 기록하지 못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던 장수연과 허윤경이 이번에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자.

‘팬텀 클래식 With YTN’은 총상금액 6억 원의 규모로 88 컨트리클럽 나라 코스(OUT)와 사랑 코스(IN)에서 개최된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88 컨트리클럽은 사계절의 자연 풍광을 즐길 수 있는 36홀 컨트리클럽이다. 각 홀마다 전략적인 레이크와 벙커를 조성한 88 컨트리클럽은

나라사랑코스과 호국보훈코스, 88사계코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팬텀 클래식 With YTN’이 개최되는 나라사랑 코스는 곳곳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함정에 유의가 필요하다.

9월 온라인 참가신청 안내

MON	TUE	WED	THU	FRI	SAT	SUN
28	29	30	31	1	2	3
				KLPGA 2017 정규투어(10월대회신청)		
				점프투어 4차 디비전(13~16차전) - 시드순위자		
4	5	6	7	8	9	10
				KLPGA 2017 정회원 선발전		
11	12	13	14	15	16	17
				드림투어 4차 디비전(15~19차전) - 시드순위자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KLPGA 2017 회원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시행(3분기 / 7월 ~ 9월) 안내

KLPGA 회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전 회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3분기(7월 ~ 9월) 회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회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취업역량과정

구분	과정명	9월	최소 신청인원
1. 교육일정 및 장소	MS 오피스 비즈니스활용 실무과정 [2일과정 / 09:00 ~ 18:00]	-	11명
	하루 완성! 스피치& 프리젠테이션클리닉과정 [1일과정 / 09:00 ~ 18:00]	-	7명
	된다! 파워포인트능력자 [2일과정 / 09:00 ~ 18:00]	7일(목) ~ 8일(금) 판교교육센터	11명
	설득커뮤니케이션 스킬 [2일과정 / 09:00 ~ 18:00]		9명
	취업교육과정 [2일과정 / 09:00 ~ 18:00]	28일(목) ~ 29일(금) 판교교육센터	8명
	하루만에 끝나는 한글 실무 활용 [1일과정 / 09:00 ~ 18:00]		9명
2. 교육목적	자기계발 및 취업 시 도움을 주고자 함(취업준비 및 취업 시 실무에서 활용 가능)		

2. 문화교양과정

구분	과정명	9월	최소 신청인원
1. 교육일정 및 장소	뷰티메이크업 과정 [1일과정 / 09:00 ~ 18:00]	-	10명
	꽃꽂이 과정 [1일과정 / 09:00 ~ 18:00]	22일(금) 강남교육센터	10명
	바리스타 과정 [1일과정 / 09:00 ~ 18:00]		10명
2. 교육목적	KLPGA 회원의 자기계발 및 취미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인문/소양 과정(리더스모닝포럼)

구분	내용												
1. 교육목적	인문학 및 소양교육을 통해 회원의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도모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네트워크 형성												
2. 교육일정	※ 연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정	6일	10일	10일	7일	11일	9일	7일	11일	8일	13일	10일	8일
	교육시간 : 06:40 ~ 09:00(조식제공)												
3. 인원/장소	선착순 30명 /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B1층/삼성동)												
4. 교육내용	IT, 라이프 트렌드, 인문학, 리더십, 마케팅, 자기계발 등 관련 주제에 따른 초청 강연												
5. 신청방법	www.klpga.cyberkma.or.kr/index.asp (로그인 시 아이디/비밀번호 : 본인 회원번호 5자리)												
	매달 19일 AM00:00부터 신청 시작(ex. 7월 포럼 신청 시, 6월 22일(목)까지 신청가능)												

4. 외국어교육 과정

■ 파고다어학원

구분	내용
1. 교육목적	외국어 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도모
2. 교육장소	[오프라인 학원] 강남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6-6, 7 파고다 어학원 (T.02-2051-4000) 종로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56-6 (T.02-2274-4000) 신촌점 : 서울시 서대문구 청천동 20-41 아남인베스텔 3층 (T.02-717-4000) 부산점 : 부산시 진구 부전2동 232-2 (T.051-802-4001)
3. 지원내용 /교육비용	1. 매달 오프라인 1강좌 90% 할인 [파고다 어학원 4개 지점(강남점,종로점,신촌점,부산서면점)] 2. 매달 온라인 2강좌 무료 수강 3. 매달 온라인 파고다스타 1강좌 50% 할인 – 주소 : www.pagodastar.com ※ 수강 가능연령 제한 없이 전 회원 가능
4. 신청방법	1. 오프라인 강좌 : 각 지점별 등록처 직접 방문 신청(회원증 지참 필수) 2. 온라인 강좌 : 홈페이지 상단 Klpga Member → 멤버존 → 외국어교육 신청으로 이동 후 수강등록(신청기간 : 매월 15일 ~ 30일) 3. 파고다스타 온라인 강좌 : 이메일(pagodastar@pagoda21.com) 또는 팩스(02-533-8066) KLPGA 회원증 사본, 신분증 사본, 할인신청서 제출 ※ 할인신청서 [KLPGA 홈페이지 → 정보센터 → 회원혜택(교육서비스) → 파고다어학원 참조]
5. 문의	담당자 : 파고다 어학원 고영순 대리 (02-6940-4052) 홈페이지 : www.pagoda21.com 파고다 스타 고객센터 : 02-6907-2489
6. 기타사항	수업(온라인, 오프라인) 진도율 70%, 미달일 경우 : 1년 간 지원 중단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 지원 영구 중단 (온라인, 오프라인) ※ 대리인 :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 전화외국어교육

구분	내용
1. 교육목적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회화 능력 강화
2. 교육일정	1회 10분 / 주 3회 신청 시 4개월 진행
3. 교육비용	무료
4. 모집인원	영어(50명), 중국어(10명), 일본어(10명) / 총 70명 신청가능
5. 신청방법	매년 3, 7, 11월에 신청자 모집 [KLPGA 홈페이지 → KLPGA 뉴스 공지 참조] 안내 공지에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 다운로드 lsjd@klpga.com으로 이메일 신청 ※ 3월(4월~7월 교육), 7월(8월~11월 교육), 11월(12월~3월 교육)

※ 교육비용 : 무료 / 문화교양과정 재료비용은 회원 별도 부담(각 과정별 금액 상이)
※ 교육신청 : www.klpga.cyberkma.or.kr/index.asp (로그인 시 아이디/비밀번호 : 본인 회원번호 5자리)
※ 취업역량과정, 문화교양과정은 최소 신청인원 미달 시 한국능률협회 공개교육으로 변경되어 개별적으로 진행
※ 사전 취소 및 연락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차후 1년간 교육 지원 중단
※ 문의사항 : KLPGA 업무지원팀 이섭정 대리(Tel. 02-560-4424 / E-mail. lsjd@klpga.com)

KLPGA 2017 영광CC · Volvik 챔피언스 투어 제3차 디비전[9차전~11차전] 참가 신청 안내

1. 대회명 : KLPGA 2017 영광CC · Volvik 챔피언스 투어 제3차 디비전(9차전~11차전)

2. 대회일정

차전	일 자	골프장	코스(OUT/IN)	총 상금
시드순위전	9월 06일(수)	영광CC	오션/벨리	—
9차전	9월 07일(목) ~ 08일(금)			6천만원
10차전	9월 18일(월) ~ 19일(화)			7천만원
11차전	9월 25일(월) ~ 26일(화)			8천만원

※ 시드순위전은 참가 신청 마감 후 참가 인원에 따라 개최유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3. 사용구

가. 사용구 : 챔피언스 3차 디비전(9~11차) 대회는 Volvik 스폰서로 인해 반드시 볼빅 볼만 사용

나. 지급방법 : 매 차전마다 현장에서 하프 dozen + 모자 지급 예정(여러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볼빅 볼을 현장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구 위반 시 실격처리가 되오니 참가 선수분들께서는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위자 특전

가. 정회원

챔피언스 투어 상금왕일 경우 다음연도 KLPGA 정규투어 대회에 상반기(1.1 ~ 7.31), 하반기 (8. 1 ~ 12. 31)에 각 1번 초청되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단, 해당 대회 2주전 월요일까지 협회에 서면으로 통보 및 참가 신청 하여야 하며, 일부 대회의 경우 초청받지 못할 수 있다.)

나. 준회원

챔피언스 투어에서 시즌 개근(컷오프 외 기권, 실격 등 기록자는 특전 제외) 준회원 중 상금순위 1위 및 평균 타수가 74.00타 이내인 자에게 정회원 자격 부여

다. 티칭회원

챔피언스 투어에서 시즌 개근(컷오프 외 기권, 실격 등 기록자는 특전 제외) 티칭회원 중 상금순위 1위 및 평균 타수가 79.00타 이내인 자에게 준회원 자격 부여

라. 일반여성

KLPGA 2017 영광CC · Volvik 챔피언스 오픈 9차 ~ 11차전에 모두 참가하고 평균타수가 82.00타 이내 및 일반여성

부분 상금랭킹 1위자일 경우 티칭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컷오프 외 기권, 실격 등 기록자는 특전 제외)

5. 상금

KLPGA 상금분배율표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총상금 : 9차전 6천만 원 / 10차전 7천만 원 / 11차전 8천만 원)

가. 프 로 : 상금분배율표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일반여성 : 상금분배율표에 따라 영광CC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6. 참가인원 : 각 차전별 프로 110명, 일반여성 10명

가. 참가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참가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시드순위전이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참가인원은 KLPGA 뉴스 'KLPGA 챔피언스 오픈 시드순위전 개최 안내'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참가자격

가. 프 로 : 42세 이상[1975년 이전 출생(1975년 포함) – 주민등록번호상]의 KLPGA 프로(정 · 준 · 티칭회원)

나. 일반여성 : 40세 이상[1977년 이전 출생(1977년 포함) – 주민등록번호상]의 여성 또는 조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8. 참가신청금 : 각 차전 당 프로 33,000원(시드순위전 22,000원) / 일반여성 참가자 55,000원(시드순위전 33,000원)

9. 기타 안내사항

가. 2014년부터 공인 드라이버 및 그루브(Groove)를 적용하여 실시하오니 챔피언스투어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정확하게 숙지하시어 차질없이 대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KLPGA 뉴스 '2014년 KLPGA 시니어투어 공인 드라이버 및 그루브(Groove) 적용 안내' 게시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루브 적용 클럽 : 로프트(loft) 각이 25도 이상인 클럽에 적용(일반적으로 5번 아이언 ~ 웨지)

나. 평소 질병이 있거나, 대회 참가 시 재발 및 발병 가능성이 있는 참가자는 대회 참가 전 대회조직위원회에

신속하게 연락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단,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참가신청 문의

가. KLPGA 담당자 : 대회운영2팀 임광훈 사원(Tel. 02-560-4416)

※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LPGA 2017 정규투어 종합 정보 안내 (08.16 기준)

No.	월	대회명	장소	프로암	공식연습일	일정	상금	라운드	참가인원
1	3월	SGF67 World Ladies Championship with SBS	중국 하이커우 미션힐스	03.15(수)	03.16(목)	03.17(금) ~ 03.19(일)	7억	3R	120명
2	4월	롯데렌타카 여자오픈	롯데스카이힐 제주	04.04(화)	04.05(수)	04.06(목) ~ 04.09(일)	6억	4R	120명
3		삼천리 Together Open 2017	88	04.11(화)	04.12(수)	04.13(목) ~ 04.16(일)	9억	4R	120명
4		넥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7	가야	04.18(화) 19(수)	04.20(목)	04.21(금) ~ 04.23(일)	5억	3R	120명
5		제7회 KG ·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	써닝포인트	04.26(수)	04.27(목)	04.28(금) ~ 04.30(일)	5억	3R	144명
6	5월	제4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동촌	없음	05.04(목)	05.05(금) ~ 05.07(일)	5억	3R	132명
7		2017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수원	05.10(수)	05.11(목)	05.12(금) ~ 05.14(일)	7억	3R	132명
8		2017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라데나	없음	05.16(화)	05.17(수) ~ 05.21(일)	7억	7R	64명
9		E1 채리티 오픈	사우스스프링스	05.23(화) 24(수)	05.25(목)	05.26(금) ~ 05.28(일)	6억	3R	144명
10	6월	제7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롯데스카이힐 제주	05.30(화) 31(수)	06.01(목)	06.02(금) ~ 06.04(일)	6억	3R	132명
11		제11회 S-Oil 챔피언십	엘리시안 제주	06.08(목)	06.07(수)	06.09(금) ~ 06.11(일)	7억	3R	132명
12		★기아자동차 제31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베어즈베스트 청라	06.14(수)	06.13(화)	06.15(목) ~ 06.18(일)	10억	4R	144명
13		비씨카드 · 한경 레이디스컵 2017	아일랜드	06.20(화)	06.21(수)	06.22(목) ~ 06.25(일)	7억	4R	132명
14	7월	조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버치힐	06.27(화) 28(수)	06.29(목)	06.30(금) ~ 07.02(일)	5억	3R	132명
15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웨이하이 포인트 중국	없음	07.05(수) 07.06(목)	07.07(금) ~ 07.09(일)	5억	3R	126명
16		카이도 여자오픈 with 타니CC	서경타니	07.12(수)	07.13(목)	07.14(금) ~ 07.16(일)	5억	3R	144명
17		MY 문영 쿼츠파크 챔피언십 2017	서원밸리	07.18(화) 19(수)	07.20(목)	07.21(금) ~ 07.23(일)	5억	3R	132명
18	8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오라	08.09(수)	08.10(목)	08.11(금) ~ 08.13(일)	6억	3R	132명
19		BOGNER MBN 여자오픈	더스타휴	08.15(화) 16(수)	08.17(목)	08.18(금) ~ 08.20(일)	5억	3R	132명
20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17	하이원	08.22(화)	08.23(수)	08.24(목) ~ 08.27(일)	8억	4R	144명
21		★한화 클래식 2017	제이드밸리스	08.28(월) 29(화)	08.28(월) ~08.30(수)	08.31(목) ~ 09.03(일)	14억	4R	132명
22	9월	★이수그룹 제39회 KLPGA 챔피언십	가평베네스트	09.04(월) 05(화)	09.06(수)	09.07(목) ~ 09.10(일)	8억	4R	132명
23		BMW Ladies Championship 2017	스카이72(하늘)	09.12(화) 13(수)	09.11(월)	09.14(목) ~ 09.17(일)	12억	4R	132명
24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레이크우드	09.19(화) 20(수)	09.21(목)	09.22(금) ~ 09.24(일)	7억	3R	120명
25		팬텀클래식 With YTN	88	09.27(수)	09.28(목)	09.29(금) ~ 10.01(일)	6억	3R	120명
—	10월	LPGA KEB Hana Bank Championship	스카이72(바다)	10.10(화)	10.11(수)	10.12(목) ~ 10.15(일)	200만불	4R	78명
26		★KB금융 스타챔피언십	블랙스톤 이천	10.17(화)	10.18(수)	10.19(목) ~ 10.22(일)	8억	4R	120명
27		SK핀क्स ·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제주 핀क्स	10.25(수)	10.26(목)	10.27(금) ~ 10.29(일)	5억	3R	108명
28	11월	★제18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블루헤런	없음	11.01(수)	11.02(목) ~ 11.05(일)	8억	4R	108명
29		ADT캡스 챔피언십 2017	사우스스프링스	11.07(화) 08(수)	11.09(목)	11.10(금) ~ 11.12(일)	5억	3R	전년과 동일
—	12월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일본 미요시	미정	미정	12.01(금) ~ 12.03(일)	1억엔	3R	미정
30		000 with SBS	해외(미정)	12.06(수)	12.07(목)	12.08(금) ~ 12.10(일)	7억	3R	미정
31		2017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중국	12.13(수)	12.14(목)	12.15(금) ~ 12.17(일)	55만불	3R	108명

* 상기 일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메이저대회



정규투어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2017

이정은6 우승, 시즌 2승째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의 새 강자로 떠오른 이정은이 시즌 2승을 달성했습니다. 이정은은 오늘 경기도 파주 서원밸리 골프장에서 열린 KLPGA투어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만 4개를 잡아내며 4언더파 68타를 쳤습니다. 이정은은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하며 2위 박소연을 한 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4월 롯데렌터카여자오픈 제패 이후 석 달 만에 상반기 마지막 대회에서 두 번째 우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이정은은 시즌 3승의 김지현, 2승의 김해림에 이어 이번 시즌 세 번째 다승자가 됐습니다. 폭우와 안개 등으로 예정보다 3시간 이상 늦게 끝난 이날 최종라운드에서 이정은은 박소연과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박소연으로서는 메인 스폰서 주최 대회인 홈코스였습니다. 이정은은 박소연에 1타 앞선 9언더파 단독 선두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1, 2번홀에서 버디를 낚지 못했고, 2번홀(파3)에서 한 타를 줄인 박소연에 공동선두 자리를 허용했습니다. 이정은은 3번홀(파5)에서 첫 버디를 낚았으나, 박소연도 버디로 응수했습니다. 박소연이 이어 7번홀(파5)에서 1타를 더 줄이며 치고 나가자 이에 이정은은 9번홀(파4)에서 버디를 낚아 동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박소연이 10번홀에서 10m가 넘는 먼 거리 버디 퍼팅을 성공해 다시 치고 나갔습니다. 이정은은 박소연이 11번홀(파5)에서 1타를 잃는 틈을 이용해 12번홀(파4)에서 4m 거리 버디 퍼팅을 홀에 집어넣으며 순위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3승을 달성한 고진영도 1타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주춤

하던 박소연이 15번홀(파4)에서 다시 1타를 줄여 공동선두가 됐습니다. 이정은은 16번홀(파4)에서 위기를 맞았는데, 1.5m가량 남은 파 퍼팅을 침착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어 17번홀(파3)에서 박소연이 티샷을 홀 3m 가까이 올려놓자, 이정은은 1.5m에 갓다 붙인 뒤 버디를 잡아내며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박소연은 18번홀(파4)에서 버디 퍼팅이 홀을 맞고 튀겨 나오면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삼천리 투게더 오픈에서 우승한 박민지가 11언더파 205타로 단독 3위에 올랐습니다. 공동 4위에는 6명이 몰렸습니다. 고진영은 이정은을 1타차까지 따라붙었으나, 마지막 홀에서 보기를 하면서 최종합계 10언더파 206타로 공동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비씨카드·한경 레이다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오지현, 롯데 칸타타 오픈 우승자 김지현, 통산 4승의 김보경도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최다승자 김지현은 이날 한 타를 잃으며 최종합계 5언더파 211타로 공동 30위에 그쳤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이승현은 6언더파 210타로 공동 25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사제공 - SBS 뉴스 유병민 기자)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KLPGA ‘돌아온’ 고진영, 시즌 첫 우승



2주간 휴식기를 마치고 하반기 레이스에 돌입한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고진영이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진영은 제주 오라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최종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아냈습니다. 최종합계 17언더파를 기록한 고진영은 김해림을 4타 차로 완벽하게 따돌리고 올시즌 처음이자 통산 8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2라운드에서 11번부터 18번홀까지 8연속 버디로 KLPGA 최다 연속 버디 타이 기록을 세우며 단숨에 1타 차 공동 2위로 치고 올라온 고진영은 3라운드 첫 홀부터 버디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2라운드에서 이어 9개 홀 연속 버디를 낚

은 셈입니다. 이어 1, 2라운드 선두 오지현이 2번홀에서 보기를 범하는 사이 고진영은 착실하게 파 세이브에 성공하면서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어 전반 마지막 홀인 9번홀 버디를 낚았고, 후반 9개 홀에서 4타를 더 줄인 고진영은 경쟁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우승 상금 1억 2천만 원을 거머쥔 고진영은 상금 랭킹도 20위에서 1위로 경종 뛰어올랐습니다. 마지막 4개 홀에서 3타를 줄이며 무서운 뒷심을 발휘한 김해림은 13언더파 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버디 3개로 3타를 줄인 이정은이 이승현과 12언더파 공동 3위에 자리했고, 4년 만에 생애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 최유림이 11언더파 5위에 올랐습니다. 1,2라운드 선두를 지켰던 오지현은 4타를 잃어 8언더파 공동 11위에 머물렀고, 국내 대회에서 아직 우승이 없는 ‘골프 여제’ 박인비는 무려 5타를 잃고 와르르 무너져 3오버파 공동 56위로 부진했습니다. 메이저 7승을 포함해 미국 LPGA 투어 18번의 우승에 빛나는 박인비는 18번의 국내 대회 출전에도 이루지 못한 KLPGA 투어 첫 우승을 다음 기회로 물리게 됐습니다. 상반기에 ‘대세’로 떠오른 김지현은 1타를 줄여 2언더파 공동 35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기사 제공 - SBS 하성룡 기자)

보그너 MBN 여자오픈

프로 데뷔 앞둔 최혜진, 18년 만에 아마추어 선수로 시즌 2승



여고생 특급 골퍼 최혜진이 아마추어 고별무대를 우승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최혜진은 경기도 양평 더스타휴 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보그너 MBN 여자오픈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4개에 이글 1개로 6타를 줄였습니다. 최종합계 14언더파를 기록한 최혜진은 2위 박지영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이번 시즌 아마추어 신분으로 프로 무대에서 2승째를 수확했습니다. 최혜진은 지난 7월 KLPGA 투어 초청탄산수 용평리조트오픈에서 우승해 2012년 김요주 이후 5년 만에

아마추어 자격으로 국내 프로 대회를 제패했고, 이날 우승으로 18년 만에 프로 무대에서 시즌 2승을 거둔 아마추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혜진 이전에 아마추어로 시즌 2승 이상을 거둔 선수는 1995년 4승을 거둔 박세리와 1999년 2승을 기록한 임선욱 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LPGA 메이저 대회인 US여자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 골프팬에게 이름을 알린 최혜진은 이 대회를 끝으로 아마추어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1999년생으로 이번 달 23일에 만 18세가 되는 최혜진은 24일에 프로로 전향한 뒤 28일에 롯데와 후원 조인식을 하고 31일 개막하는 KLPGA 투어 한화 클래식을 통해 프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우승을 차지한 최혜진이 아마추어 신분이기 때문에 우승 상금 1억 원은 2위 박지영에게 돌아갑니다. 폭우로 4시간이나 늦게 시작된 최종 라운드에서 최혜진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선배들을 압도했습니다. 1타 차 공동 3위로 출발했지만 전반에만 4타를 줄여 3타 차 선두로 치고 나간 최혜진은 같은 조의 김소이가 9번홀부터 3홀 연속 버디로 동타를 만들자 오히려 더 공격적인 플레이로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273m의 파4, 11번홀에서 드라이버 티샷으로 공을 그린에 올린 뒤 까다로운 내리막 이글 퍼트에 성공하며 다시 2타 차로 달아났습니다. 김소이도 계속 끈질기게 따라붙었지만 17번홀에서 스스로 무너지며 승부가 손쉽게 갈렸습니다. 김소이는 두 번째 샷이 그린 오른쪽 벙커 옆 러프에 빠졌는데, 세 번째 샷이 질긴 러프를 뚫지 못하고 공을 오히려 더 깊이 박아놓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 김소이는 다섯 타 만에 공을 그린에 올렸고, 더블보기 퍼트마저 실패하며 이 홀에서만 3타를 잃었습니다. 김소이는 박지영에게도 1타를 뒤진 합계 11언더파 3위에 머물렀습니다. (기사제공 - SBS 김형열 기자)



드림투어

호반건설 챔피언십 2017 1차전

인주연, 7타 차를 극복하고 생애 첫 드림투어 우승!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스카이밸리 컨트리클럽(파 72/6,435야드) 마운틴(OUT), 레이크(IN) 코스에서 열린 ‘호반건설 챔피언십 2017 1차전(총상금 5억 원, 우승상금 1억 원)’ 최종라운드에서 인주연(20,휴온스)이



선두와 7타 차를 극복하고 생애 첫 드림투어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2라운드까지 중간합계 4언더파 140타를 쳐 공동 9위로 최종라운드에 진출한 인주연은 2번홀(파4,378야드)에서의 버디로 드림투어 첫 우승을 향한 시동을 힘차게 걸었다. 5번홀(파3,136야드)까지 연속 4개 홀에서 버디를 낚으며 순위를 끌어올린 인주연은 그 후로도 보기 2개, 버디 6개를 추가해 최종라운드에서만 8언더파 64타의 스코어 카드를 적어냈다. 인주연은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하며 이 대회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이로써 인주연은 대회 초대 챔피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우승상금 1억 원을 챙겼고, 지난 1라운드에서 임진희(19), 공미정(20), 김연승(28,볼빅)이 세운 코스레코드(7언더파 65타)를 다시 한 번 경신하는 진기록까지 세우며 현금 200만 원까지 부상으로 받았다. 경기를 마친 후 인주연은 “생각지도 못한 우승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이라 더 뜻 깊다”고 말하며 “항상 최종라운드에서 무너졌던 기억에 오늘은 편하게 마음먹고 치자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더니 우승이 따라 온 것 같다. 여태까지 함께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과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우승 소감을 밝혔다. 8언더파를 친 비결을 묻자 인주연은 “년 정도 티샷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티샷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경기가 잘 풀렸다”는 생각을 밝히며 “16번홀에 스코어 보드가 있었는데 일부러 보지 않았다. 18번홀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선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가장 주효했다. 스코어를 알았다면 흔들렸을 것”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인주연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난주 정규투어에서 뛰고 바로 이번 대회에 임하면서 정규투어와 드림투어를 병행하는 데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드림투어 다승이나 정규투어 우승에 대한 목표보다는 오늘처럼 자신 있는 티샷을 바탕으로 매 대회 좋은 성적을 내는 멋진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KLPGA 2017 엑스페론·백제 CC Dream Tour

백제CC 드림투어 10차전

김정연, 1타 차 짜릿한 생애 첫 승 달성!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 컨트리클럽(파 72/6,547야드) 한성(OUT), 사비(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7 엑스페론·백제CC 드림투어 10차전(총상금 6천만 원, 우승상금 1천 2백만 원)’ 최종라운드에서 김정연(21,KOS익스프레스)이 5타를 줄이며 2위와 1타 차의 짜릿한 우승을 달성했다. 대회 첫날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잡는 깔끔한 플레이로 중간합계 4언더파 68타 공동 2위에 자리한 채 최종라운드에 돌입한 김정연은 전반 버디 3개, 후반 보기 1개와 버디 3개를 낚아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68-67)로 경기를 마쳤다. 1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의 성적으로 최종라운드를 단독 선두로 시작한 지난 드림투어 6차전 우승자인 박우준(18)은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린 올시즌 다승자 한진선(20,볼빅)과 함께 챔피언즈에서 플레이하며 스코어를 줄였지만, 김정연이 기록한 9언더파를 넘지 못하고 경기를 마쳐 우승컵은 김정연에게 돌아갔다. 이로써 2014년 KLPGA 입회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김정연은 생애 처음으로 우승컵을 품에 안았고, 우승 상금 1천 2백만 원을 추가하며 상금순위 21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정연은 “우승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도 긴가민가하고 얼떨떨했는데, 주위 분들이 축하해 주시니 이제야 실감 난다”고 밝히며 “골프를 하는 데 도움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고 부모님, 특히 항상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는 우승 소감을 말했다. 이어 김정연은 오늘 경기에 대해 “우승을 했지만 사실 아쉬웠던 순간들이 많았다.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퍼트가 많았는데 아쉬운 실수로 놓치면서 우승 못 할 줄 알았다. 스코어를 잃을 뻔한 힘든 고비마다 함께 고생하시는 아버지 생각이 나 더 힘낼 수 있었던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라고 밝히며 “전체적으로 샷과 퍼트 모두 잘 됐던 대회라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며 웃었다. 이어 김정연은

“골프에 재미를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연습량이 많이 늘었다. 거리가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라 퍼트, 어프로치 등 쇼트게임 연습을 많이 했고, 연습 시간에 비해해 자신감도 커지고 성적도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아직 많이 부족한 20미터 내외의 기본적인 어프로치를 조금 더 보완한다면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덧붙혔다. 또 “골프를 늦게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활약하고 있는 전미정(35)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밝힌 김정연은 “정규투어 시드전을 통과해서 정규투어를 뛰는 것이 올시즌에 들어가면서 세운 목표였다”고 말하며 “이번 대회 우승으로 다른 목표가 생겼다. 호반건설 챔피언십 2차전의 시드를 확보한 만큼 최대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정규투어로 올라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LPGA 2017 엑스페론-백제CC 드림투어 11차전
최예림, 5홀 연장 승부 끝에 우승!**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 컨트리클럽(파 72/6,547야드) 한성(OUT), 사비(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7 엑스페론-백제CC 드림투어 11차전(총상금 6천만 원, 우승상금 1천 2백만 원)'에서 최예림(18)이 우승을 차지했다. 선두와 3타 차 공동 3위로 1라운드를 마친 최예림은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잡아내며 최종합계 7언더파 13타로 박효진(20)과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5번홀까지 이어진 연장전에서 박효진은 6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놓쳤고, 이를 지켜본 최예림이 4m 퍼트를 깔끔하게 집어넣으며 버디를 잡아내 2017시즌 드림투어 11번째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골프를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한 최예림은 농구선수 출신인 부모님의 운동신경을 물려받아, 2014년에 국가 상비군을 지내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점프투어 5차전 우승을 포함해 7차전과 8차전에서도 톱텐에 들며 이름을 알린 최예림은 지난달에 정회원으로 승격한 후 출전한 드림투어 두 번째 대회에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최예림은 “점프투어 5차전에서도 연장까지 가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연장 승부 끝에 우승을 해서 더 값지고 배운 것이 많은 것 같다. 아직 열렬하지만 정말 기쁘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예림은 “샷은 꾸준히 잘 됐는데 최근에 퍼트가 안 돼서 고민이 컸다. 그림을 역그림으로 바꿔 잡아봤는데 효과가 좋았다”고 말했다. 최예림은 “정규투어에서 다승왕을 해보는 것이 목표다. 상금왕이나 대상도 좋지만, 우승을 많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우승은 역시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다”며 웃었다.

**KLPGA 2017 엑스페론-백제CC 드림투어 12차전
지영민, 3타 차 우승!**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 컨트리클럽(파 72/6,547야드) 한성(OUT), 사비(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7 엑스페론-백제CC 드림투어 12차전(총상금 6천만 원, 우승상금 1천 2백만 원)'에서 지영민(21)이 우승을 차지했다. 1라운드에서 4명의 선수가 중간합계 5언더파 6타로 공동선두에 오르며 치열한 우승컵 경쟁을 예고했다. 최종라운드에서 다른 선수들이 주춤한 사이, 지영민이 침착하게 4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67-68)로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지영민은 “첫 우승의 기회를 잡아 너무 떨렸다. 타수 차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홀까지 긴장했다. 기다렸던 우승을 하게 돼서 기쁘고 열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2014년부터 점프투어에서 활동해온 지영민은 지난해 8월 정회원으로 승격했고 올해부터 드림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영민은 “올해 매일 꾸준히 라운드를 돌았다. 지난해와 달리저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연습했다”고 밝힌 뒤, “덕분에 전체적으로 감이 좋아졌고, 오늘은 아이언 샷이 특히 좋아서 버디 찬스를 놓친 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영민의 언니인 지영진(23) 또한 프로골퍼다. 지영진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규투어에서 활동했으며 올해는 드림투어에서 동생 지영민과 함께 투어 생활을 하고 있다. 175cm가 훌쩍 넘는 자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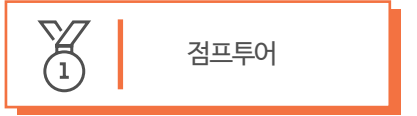
어릴 때부터 체격조건이 좋았고, 이에 운동을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아버지가 골프를 권유하면서 함께 선수 생활을 하게 됐다. 지영민은 “언니와 함께해서 좋은 점이 정말 많다. 서로 조언도 자주 해주고 잘 안 될 때는 위로도 해준다. 언니가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언니도 빨리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LPGA 2017 엑스페론-백제CC 드림투어 13차전
조윤정, 버디 7개 낚으며 역전 우승!**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 컨트리클럽(파 72/6,547야드) 한성(OUT), 사비(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7 엑스페론-백제CC 드림투어 13차전(총상금 6천만 원, 우승상금 1천 2백만 원)'에서 조윤정(22)이 우승을 차지했다. 1라운드부터 5명의 선수가 중간합계 4언더파 68타로 공동선두에 오르며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됐다. 최종라운드에서 선두권에 있던 선수들이 주춤한 사이, 공동 10위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조윤정이 무서운 집중력으로 보기 1개, 버디 7개를 기록해 6타를 줄이는 기염을 토하며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70-66)로 2015년 'KLPGA 2015 이동수스포츠배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6차전' 우승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조윤정은 “생각지도 못한 우승이 찾아와 정말 기쁘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골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부모님과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는 우승 소감을 밝히며 “지난해 정규투어를 뛰면서 많이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아직도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처음으로 전지훈련도 안 가고 한국에서 운동하면서 많은 부분에 변화를 줬던 것이 우승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는 우승의 원동력을 밝혔다. 이어 조윤정은 “오늘은 샷과 퍼트가 전반적으로 모두 잘 됐고 특히 세컨드 샷이 핀에서 다섯 발자국 이내에서 벗어나지 않아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다”고 말한 뒤, “한동안 퍼트가 발목을 잡아서 고민이 많았다. 스트로크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경사를 잘 못 읽

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떨어졌었다. 과감하고 자신 있게 치자고 마음먹었던 것이 오늘 버디 7개를 잡는 데 도움이 됐다”며 오늘 경기를 회상했다. 조윤정은 “올시즌을 시작하면서 우승 생각보다는 정규투어 시드전까지 감을 최대한 끌어올려 시드전을 통해 정규투어에 진출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마음을 비웠더니 우승이 찾아온 것이 아닐까 싶다”고 밝히며 “점점 샷과 퍼트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앞으로 남은 대회와 8월 말에 예정된 호반건설 챔피언십 2017 2차전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상금 순위 6위 안에 들어 정규투어로 올라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LPGA 2017 아바쿠스-유림골프클럽
점프투어 with 현대솔라고 10차전
김스텔라, 연장 5홀 끝에
생애 첫 우승 달성!**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현대 솔라고 컨트리클럽(파 72/6,171야드) 라고-아웃(OUT), 라고-인(IN)코스에서 열린 'KLPGA 2017 아바쿠스-유림골프클럽 점프투어 with 현대솔라고 10차전(총상금 3천만 원, 우승상금 6백만 원)'에서 김스텔라(19)가 생애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중간합계 2언더파 70타, 선두와 2타 차 공동 5위로 최종라운드에 나선 김스텔라는 버디 8개와 보기 2개를 묶어 6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70-66)로 경기를 마쳤고, 동타를 기록한 김아로미(19)와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연장 승부는 파행진을 벌이며 5차전까지 이어졌다. 5번째 연장홀에서 김스텔라와 김아로미 모두 핀 우측 4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남겨두었고, 먼저 퍼트한 김스텔라만이 버디에 성공하면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4월, 준회원 선발전을 통해 KLPGA 준회원으로 입회한 김스텔라는 드라이버 비거리가 280야드에 달하는 장타를 주 무기로 하는 선수로 최근 샷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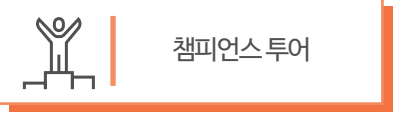
까지 다잡으며 자신감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김스텔라는 “아직 나보다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는 못 봤다”고 웃으며 “방향성이 좋아지면서 더 자신 있게 칠 수 있게 됐다”며 우승의 원동력을 꼽았다. 김스텔라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취미로 골프를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가족들을 설득해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어린 나이에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 다들 걱정이 컸는데 이번 우승으로 인정받게 된 것 같아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김스텔라는 “어릴 때는 전 세계의 모든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보는 게 꿈이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언젠가 LPGA투어에 진출해 세계 유명한 골프장을 돌면서 나이가 들어서까지 행복하게 골프를 치고 싶다”고 말했다.

**KLPGA 2017 아바쿠스-유림골프클럽
점프투어 with 현대솔라고 11차전
강지선, 생애 첫 우승!**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현대 솔라고 컨트리클럽(파 72/6,261야드) 솔-아웃(OUT), 솔-인(IN)코스에서 열린 'KLPGA 2017 아바쿠스-유림골프클럽 점프투어 with 현대솔라고 11차전(총상금 3천만 원, 우승상금 6백만 원)'에서 강지선(21)이 생애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1라운드에서 7연속 버디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며 9언더파 63타로 단독 선두에 오른 강지선은 최종라운드에서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5타를 더 줄여 최종합계 14언더파 130타로 점프투어 역대 최저타(2017시즌 점프투어 7차전 김지윤B) 타이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강지선은 “드라이버 방향성이 좋아지면서 쇼트게임의 중요성을 느꼈고 최근 쇼트게임 위주로 연습에 매진한 것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며 우승 요인을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골프채를 잡은 강지선은 중학교 3학년 때 골프와 영어를 한 번에 배우기 위해 오빠와 단둥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유학길에 올랐다. 강지선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교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시에 NJCAA(미국주니어선수협회)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공부와 골프 중 무엇을 택할지 고민하던 강지선이 한국에서 프로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LPGA투어에서 활동하는 김세영(23,미래에셋)의 조언이 큰 역할을 했다. LPGA투어 Q스쿨을 구경하러 갔다가 김세영을 처음 만나 친분을 쌓게 됐고, 김세영은 고민하던 강지선에 ‘공부는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운동은 때가 있기 때문에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한국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봐라’라고 조언했다. 이에 강지선은 올해 한국으로 돌아와 준회원 선발전을 통해 KLPGA 준회원으로 입회하게 됐다. 롤모델로도 김세영을 꼽은 강지선은 “김세영 선수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다. 항상 김세영 선수가 맛있는 것을 사줬는데 이번에 만나면 내가 사야겠다”며 웃었다. 이어 강지선은 “정규투어에 진출해서 상금왕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2017 5차전
골드부 이영미, 그린부 이정연 우승!**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스카이블리 컨트리클럽(파 72/6,019야드-그린부, 5,768야드-골드부) 스카이(OUT), 벨리(IN) 코스에서 열린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2017 5차전’ 골드부, 그린부 최종라운드에서 이영미(54)는 와이어 투 와이어로, 이정연(38)은 4타차 역전 우승을 기록하며 초대 우승 자켓의 주인공이 됐다. 총 40명이 참가한 골드부에서는 지난 4차전 우승자 이영미가 노련함을 앞세워 1라운드부터 보기 2개에 버디 6개를 속아내는 완벽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중간합계 4언더파 68타를 쳐 단독 선두로 나섰다. 1라운드 중간합계 이븐파 72타를 기록하며 단독 2위에 자리한 송윤경을 4타 차로 앞선 채 맞은 최종라운드에서 이영미는 버디 1개, 보기 2개를 기록해 최종합계 3언더파 141타로 정규투어 기록을 포함해 생애 첫 2주 연속 우승을 달성함과 동시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골드부 초대 우승

자로 등극한 이영미는 “골프 인생에서 처음으로 2주 연속 우승을 기록해 더욱 기쁘고, 뜻깊은 우승이 아닐 수 없다”고 말문을 열어 “1라운드에서 컨디션이 좋아 4언더파를 쳤던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어제만큼 좋지 않았지만 지켜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영미는 “티잉 그라운드가 앞당겨져 세컨드 지점에서 짧은 클럽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우승의 원동력”이라고 밝히며 “선수층이 젊고 전장이 긴 그린부였다면 우승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102명이 출전한 그린부에서는 1라운드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홍희선(46)이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낚아 중간합계 3언더파 69타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 그 뒤를 임승희(45)와 김선미(44)가 1타차로 바짝 쫓았다. 이정연은 버디 3개를 잡았지만 보기 2개와 더블보기 1개를 기록해 1오버파 73타로 공동 14위의 성적으로 최종라운드를 맞았다. 최종라운드에서 이정연은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낚아내는 완벽한 플레이로 선두를 탈환했고, 선두권에 자리했던 홍희선, 임승희, 김선미가 모두 타수를 잃으면서 이정연이 생애 첫 출전한 챔피언스 투어에서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정연은 “1999년도에 KLPGA 투어 ‘SBS 프로골프 최강전’ 우승 이후로 오랜만의 우승이라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밝히며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해서 기대 안하고 나왔는데 경쟁하신 선배님들 사이에서 우승하게 되어 뜻깊다”는 우승 소감을 밝혔다. 챔피언스 투어의 그린부로 KLPGA에 복귀한 이정연은 “79년생까지 출전할 수 있는 그린부가 생기면서 서아람 프로의 권유로 신청하게 됐고 덩으로 좋은 결과까지 얻었다. 앞으로 남은 3개의 그린부에서도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2017 6차전 골드부 이영미, 그린부 김서윤 우승!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스카이밸리 컨트리클럽(파 72/6,017야드-그린부, 5,716야드-골드부) 스카이

(OUT), 밸리(IN) 코스에서 열린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2017 6차전’ 골드부, 그린부 최종라운드에서 이영미(54)가 지난 5차전에 이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기록했고, 김서윤(42)은 1타 차의 짜릿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총 38명이 참가한 골드부에서는 지난 4, 5차전 우승자 이영미가 1, 2라운드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69-71)를 쳐 다시 한번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기록했고, 챔피언스 투어에서 2006년 김형임이 기록한 3개 대회 연속 우승(2006 아카아골프 시니어 여자오픈 2~4차전)이라는 대기록과 마주했다. 이영미는 “개인적으로 세 개 대회 연속 우승이 처음이라 이번 우승이 더 기쁘고 뜻깊은 날이다”라는 입을 열며 “코스가 워낙 나에게 잘 맞기 때문에 집중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매 순간 집중했더니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 또, 2승을 달성하고 난 후 생인 여유가 이번 우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영미는 “최종라운드 첫 홀에서 파 온을 하고도 3퍼트로 보기를 기록해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이 주효했다”고 밝히며 “어제보다 오늘 안된 것이 많아 걱정했는데 마지막 세 홀에서 버디 2개를 잡아 더 기분이 좋다.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86명이 출전한 그린부에서는 1라운드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홍희선(46)이 전반 두 번째 파3홀(5번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면서 흐름을 타고, 그 후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낚아내 중간합계 5언더파 67타, 2타차 단독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 홍희선의 뒤를 김서윤과 이광순(48,모리턴구단)이 2타차로 바짝 쫓았다. 챔피언스에서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홍희선은 샷 난조를 보이며 버디 2개, 보기 5개를 기록해 타수를 잃었고, 김서윤은 전반에 버디 2개를 낚고 후반은 보기 1개로 막아내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생애 첫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김서윤은 “생애 첫 우승 실감이 안나 얼떨떨하다. 코스도 그린도 어려워 많은 기대하지 않았고, 스코어를 잃지만 말자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우승 소감을 밝히며, “어제와 오늘 모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걱정했던 어려운 홀들에서 스코어를 잃지 않았던 것이 주효했다. 자신 있게 친 티샷과 정확했던 아이언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경기를 회상했다. 김서윤은 2007년 KLPGA 준회원으로 입회해 지난 2015년까지 점프투어에서 활동하다가 올해부터 챔피언스 투어를 뛰고 있는 챔피언스 투어의 루키다. 챔피언스 투어에서의 준회원 우

승 기록은 2013년 ‘센츄리210C-볼빅 시니어투어 6차전’ 우승자 박미경(46) 이후로 약 4년 만이다. 이어 김서윤은 “사실 학업과 챔피언스 투어를 병행하고 있고, 지난해 팔꿈치 부상으로 겨울 동안 연습을 못하기도 했기 때문에 우승을 정말 기대하지 못했다. 재활과 체력운동, 연습 등 꾸준히 골프를 놓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승을 목표로 하기보다 정회원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는 플레이로 지금 성적을 지켜내는 것이 목표다”는 포부를 밝혔다.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2017 7차전 골드부 송윤경, 그린부 이광순 우승!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스카이밸리 컨트리클럽(파 72/6,019야드-그린부, 5,699야드-골드부) 스카이(OUT), 밸리(IN) 코스에서 열린 ‘호반건설 챔피언스 클래식 2017 7차전’ 골드부, 그린부 최종라운드에서 송윤경(52)이 약 6년 3개월 만에 우승의 기쁨을 맛보고, 이광순(48,모리턴구단)도 약 2년 2개월 만의 우승을 기록했다. 총 36명이 참가한 골드부에서는 송윤경이 최종합계 2언더파 142타를 쳐 4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한 이영미(54)와 연장까지 간 끝에 첫 번째 홀에서 파를 기록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송윤경은 지난 2011년 열린 ‘KLPGA 2011 볼빅-센츄리210C 챔피언스투어 2차전’ 우승 이후 약 6년 3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송윤경은 “2011년 우승 이후 우승을 갈망해왔다. 그 당시 우승은 골프 치는 것을 반대하셨던 어머니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티닝포인트였다. 그 후 오랫동안 우승이 나오지 않아 올해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우승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골프를 사랑하시는 노년의 아버지께 딸이 우승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리자’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하며 “이번 우승으로 효녀가 된 것 같아 행복하다. 나 이든 딸이 이제서야 효도한 것 같은 기분이다.”라는 우승 소감을 밝혔다. 오늘 경기에 대해 송윤경은 “어제 후반에 긍정적이지 못했던 모습에 오늘은 긍정적

인 마인드로 치자고 마음먹었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샷도 괜찮았고, 틈틈이 연습한 퍼트도 몹을 다해줬다. 그리고 특히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줘 힘을 많이 받았던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송윤경은 “올시즌 들어오면서 1승이 목표이자 숙제였다. 이번 우승으로 목표를 달성했으니 남은 대회들은 마음 편하게 칠 수 있을 것 같다. 자만하지 않고 남은 대회도 잘 준비해서 즐기는 골프를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87명이 출전한 그린부에서 우승자 이광순은 1라운드부터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낚는 맹타를 휘두르며 일찌감치 4타차 선두로 나섰다. 1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로 공동 2위에 자리해 이광순을 추격하던 차지원(44)과 김건이(45)는 최종라운드에서 샷과 퍼트 난조로 스코어를 잃은 반면, 이광순은 위기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선두 자리를 지켜내 약 2년 2개월 만에 챔피언스 투어 트로피를 다시 차지했다. 이광순은 “오랜만의 우승이라 정말 기쁘다. 작년과 재작년에 났 듯 하면서 안 났서 마음고생이 심했다. 스윙은 괜찮았는데 심적인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후원해 주시는 모리턴 구단의 이종승 회장님, 승주 컨트리클럽의 임직원 분들, 골프 모임 우암회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응원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광순은 “챔피언스 투어와 드림투어를 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드전에 나갈 때마다 계속 결과가 좋지 않아서 챔피언스 투어에 집중했던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히며 “이번 대회 시작 전에 퍼트 감을 찾아서 자신감이 생긴 상태였다. 퍼트가 자신감이 생기니 아이언 샷도 좋아져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 경기를 회상했다. 이광순은 “여태까지 최종라운드에서 챔피언즈 혹은 그 앞 조에서 플레이한 적이 많은데, 항상 마지막 날 스코어를 잃어 우승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극복해 낸 것 같아 뿌듯하고, 이 기세를 몰아서 2승, 3승까지 노려 올시즌 상금왕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상금왕 자격으로 정규투어에 출전하는 것이 올해 목표다. 남은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LPGA TO YOU 골프환경조성 프로젝트 KLPGA, 유소년 골프환경조성 및 용품 지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7월 26일(수)과 28일(금), 전북 익산 이리계문 초등학교와 충남 천안의 미죽 초등학교에서 골프 연습장 준공식을 가졌다. KLPGA는 골프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2015년부터 ‘KLPGA TO YOU 골프환경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여섯 개의 타석을 갖춘 골프 연습장과 함께 골프클럽 6세트, 골프볼 1000개, 골프장갑 40개를 각 두 초등학교에 지원했다. 지난 26일(수)에 진행된 이리계문 초등학교의 완공된 골프연습장 준공식에는 KLPGA 김경자 김경자 전무이사와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해 이리계문 초등학교 윤경희 교장, 교감 및 학교운영위원장, 학생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28일, 미죽 초등학교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KLPGA 김경자 전무이사와 미죽 초등학교 김진화 교장뿐만 아니라 천안교육지원청 임원목 교육장, 충남교총 최경섭 회장, 한국교장단 송도영 회장도 참석해 골프연습장 완공을 축하했다. KLPGA 김경자 전무이사는 “골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을 위해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 완공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에 흥미를 갖길 바라며, 훌륭한 골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KLPGA는 골프환경조성과 유소년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첸 유주, KLPGA 2017 인터내셔널 컬리파잉 토너먼트 우승!



올해로 3회째를 맞은 ‘KLPGA 2017 인터내셔널 컬리파잉 토너먼트’에서 대만의 첸 유주(20)가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69-70-66-67)로 우승을 차지했다. 첸은 대만과 중국 골프협회의 소속 프로 선수로 올해 6월에 열린 ‘퍼시픽링크스 인터내셔널 TLPGA 헤리티지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장가항 썬상 쉼린지’에서 3위, ‘EFG 홍콩 레이디스 오픈’에서 4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첸은 “한국은 중국이나 대만보다 강한 선수들이 모여 경쟁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두 자리에 서고 싶었다. 그래서 쇼트 퍼트와 웨이트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12살에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한 첸은 박인비를 롤 모델로 삼고 있다. 첸은 “박인비 선수를 보면 그냥 ‘좋다!’는 느낌이 든다. 안정적인 경기운영이나 자체 등 박인비 선수의 모습을 닮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첸은 “한국에서 데뷔하는 것이 꿈이다. 한국에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여 세계 무대로도 진출하고 싶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올해부터는 최종 순위 3위까지 기록한 선수에게 다음 시즌 드림투어 첫 디비전의 시드권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우승자 첸과 2위에 오른 폴린 델 로사리오(18,필리핀), 올해 1투어 멤버로 점프투어에서 활약한 니시무라 미키(21,일본)가 ‘2018시즌 드림투어 첫 디비전’의 활동 자격을 얻었다. 이밖에 2년 연속 본 대회에 참가한 고가 에이미(22,일본)가 4위에 올랐고, 공동주관대회를 포함해 지난 시즌 6개, 이번 시즌 3개의 KLPGA투어에 참가해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장 지예날린(21)이 공동 5위를 기록하면서 상위 30%(13위까지)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KLPGA 2018 정규투어 시드 순위전 예선’의 참가 기회를 얻었다. 상위 60%의 선수(25위까지는)는 드림투어와 점프투어 시드순위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인터내셔널 컬리파잉 토너먼트를 통해 투어 자격을 획득한 선수는 ‘인터내셔널 투어 멤버’로서 다음 시즌 종료시까지 그 자격을 지닌다.



KLPGA 공식 사진기자인 박준석 사진기자가 직접 선정한 2017 KLPGA 투어 베스트 포토입니다.

사진 _ KLPGA 공식 사진기자 박준석

07. 21 - 23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2017



MY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2017 공식 포토콜에서 포즈 취하는 김해림, 김민선5, 김지현2, 김지현, 김자영2, 이승현



2번홀에서 홀인원 기록한 남소연이 포즈 취하고 있다 남소연



김해림 폭염에 얼음 주머니를 머리에 얹은채 스코어 카드를 보고 있다 최유림

08. 11 - 13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뜨는 별과 살아있는 전설 이정은6, 박인비



대회 관계자들과 우승 세리모니를 하는 고진영



08. 18 - 20

BOGNER MBN 여자오픈



우승 축하 물세례 받는 최혜진

우승 확정 후 포즈 취하는 최혜진



김지현 (Kim Ji Hyun) / 金知炫

생년월일 1991년 11월 21일

입회연도 2009년 06월

소속 한화

정규투어 통산우승 3승

2017 기아자동차 제31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우승

2017 제11회 S-OIL 챔피언십 우승

2017 제7회 KG ·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 우승

골프 인생을 새롭게 그리다

KIM
JIHYUN

생애 첫 우승부터 다승까지, 최고의 한 해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지현. KLPGA투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_ 박자원 사진 _ 강권신

지난 시간을 잊어 내리는 단비, '우승'

8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김지현은 올시즌 비로소 오랜 우승의 목마름을 해소했다. 그는 '제7회 KG ·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에서 우승의 물꼬를 텃고 이후 '제11회 S-OIL 챔피언십'과 '기아자동차 제31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승수를 더하며 KLPGA투어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KG ·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에서 김지현은 극적인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라운드에서 10타를 줄이며 공동선두로 나선 그는 3라운드에서 이정은6, 이정은5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마지막 18번홀까지 타차를 벌리지 못한 채 긴 퍼트를 앞둔 그는 마지막 홀의 결과에 따라 연장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거짓말 같은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우승에 빼기를 박았다. "제 골프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우승했다고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고, 얼떨떨했죠. 이후엔 너무 기뻐서 눈물이 평평 났어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받는 것처럼 기뻐했다는 그에게 첫 번째 우승보다 힘들다는 두 번째 우승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KG ·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 이후 6주만인 '제11회 S-OIL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 컷 탈락을 하지 않는 게 목표였다는 그는 이 대회에서 우승은 생각지도 못했었다. "엘리시안 제주cc는 제가 항상 성적이 좋지 않았던 곳이라 연장전으로 이어지는 게 오히려 놀라울 정도였죠." 첫 번째 우승만큼이나 남달랐던 두 번째 우승은 녹록지 않았다. 지난 시즌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연장전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던 그는 이번 대회에서 아쉬움을 털어버리듯 연장 5번홀까지 거른 끝에 값진 승리를 얻었다.

김지현의 호조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17시즌 첫 메이저 대회 '기아자동차 제31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13번홀에 세컨드샷이 해저드에 빠지는 해프닝에도 안정적인 어프로치 샷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우승 샷으로 완성시켰다.

최고의 선택 '골프'

김지현에게 있어 골프는 두 번째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종목이다. 부모님의 권유로 쇼트트랙을 시작한 그는 초등학교를 입학할 무렵부터 쇼트트랙 선수로 활약했다. 그러던 중 중학교 1학년 즈음 스케이트를 벗고 골프채를 잡기로 마음먹었다. 6년 동안의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삶을 버리고 골프를 즐기는 사춘오빠와 엄마의 권유로 시작한 골프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그는 선택에 후회가 없다. "골프는 자기와의 싸움인 만큼 연습량과 인내심이 중요해서 쇼트트랙과는 전혀 달랐어요. 스피드를 중시하는 것보다 한 타, 한 타의 타구감을 느껴야 하는 골프만의 매력에 푹 빠졌죠."

남들보다 늦은 시작과 결심이었지만 쇼트트랙으로 다진 훈련과 근육은 매주 이어지는 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체력과 안정적인 아이언 샷을 칠 수 있는 하체 근육의 밑바탕이 되어 지금의 김지현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지루하고 힘든 훈련의 반복이지만 그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대회를 쉬지 않고 치를 수 있었다며 지난 시간의 노고는 잊은듯 활짝 웃어 보였다. 유년시절을 오로지 골프에만 쏟은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아쉬움도 많을 법하건만 김지현은 그 시간을 또 다른 강점을 쌓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의 반복. 그것이 8년의 공백을 깨고 새롭게 도약하는 김지현의 다승 비결은 아닐까?



골프선수 김지현을 떠올렸을 때
자만하지 않는 선수,
기량의 기복 없는
꾸준한 플레이어로
기억되고 싶어요.



부족했던 한 발자국을 채우다

“지난 시간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골프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지만 그래도 좌절감이 드는 날, ‘새가슴, 뒷심부족’이라는 평가에 고민스러운 시간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안성현 코치님은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안성현 코치는 김지현의 멘탈부터 체력, 스윙까지 모든 것을 함께하며 5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 거침없는 입담이 특징이다. 그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해서 전달해주고, 부족한 부분에는 식사도 거를 만큼 집중해가며 가르친다. 그 과정에 있어 툭툭 튀어나오는 거침없는 표현은 때론 자극적이지만 무거운 울림을 준다. “한번은 제가 ‘뒷심이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라고 물으니 코치님이 뒷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승하기까지 실력이 부족한거고, 유독 안 풀리는 날이 마지막인 거라고요. 경기 내내 잘하는 선수도 있지만, 특히 첫날에 저조한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제 경우는 그 날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연습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안성현 코치의 애정 어린 쓴 조언은 김지현을 더욱 성장시켰다. 안성현 코치와 만난 뒤로 매해 성적과 기량을 향상해온 그는 부족한 쇼트 게임에 시간을 갖고 닦으면서도 장점으로 꼽는 아이언 샷의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하루가 부족한 스케줄이지만 그의 성실함은 안성현 코치를 만나 만개하고 있었다.

‘0승’으로 다시 시작하다

생애 첫 우승과 다승을 기록한 올시즌은 김지현에게 특별하다. 좋은 흐름이 함께하고 있는 한해이자 앞으로의 골프 인생을 그려갈 한해이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상반기 우승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받는 기대와 관심으로 찾아온 부담감과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함께 찾아왔었다. “마음을 비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우승에 욕심을 낼수록 더 멀어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으로 배웠으니까요.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상반기의 우승을 잊고, 하반기에 경기에만 집중하려 한다는 김지현은 ‘하반기 0승’을 기록 중이라며 더 많은 승수를 쌓는 것이 아닌 톱텐에 꾸준히 드는 것을 하반기 목표로 삼았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 우승이라는 큰 욕심을 내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 상반기가 지금까지의 골프 인생 중에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골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잘하는 것보다 부족한 게 더 많거든요.(웃음)”

KLPGA투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완성해가고 싶은 플레이가 너무 많다는 김지현. 그는 자신의 목표와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활기찬 웃음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의 앞날이 더욱 기대된다.

1. 이상형이 어떻게 돼? 연예인에 비유하면 누구?

조인성

2.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파스타 콩국수

3. 어릴 적 별명이 있어? 있다면 별명이 뭐야?

김전

4. 나를 색깔에 비유한다면 무슨 색인 것 같아?

오렌지

5. 내 신체부위 중에 가장 자신있는 부분을 자랑해 줘!

하체

6. 요즘 최고의 관심사가 뭐야?

골프 패션

7.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건축가

8. 부모님에게 난 어떤 딸이야?

말 잘듣는 착한 딸

9. 나에게 골프란 ○○이다.

단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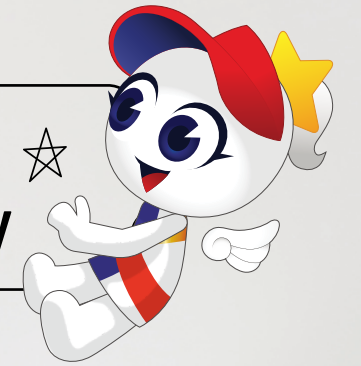
10. 솔직하게 답변해 줬으니 소원을 들어줄게.
세 가지 소원을 말해봐!

세계 일주하기

내만의 집 건축하기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기

케이의 밀착 Interview



Two + People

라이징스타 | 강율빈

부진을 딛고 화려하게 날아오르다

드림투어 8차전 우승자
강율빈



지난 6월, 'KLPGA 2017 이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8차전'에서 강율빈이 약 2년 만에 우승컵을 다시 들어 올렸다. 좌절하지 않고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나 새로운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엿들어본다.

글 _ 김청미 사진 _ 강권신

강율빈 (Kang Yul Been) / 姜栗彬

생년월일 1995년 02월 03일

입회연도 2013년 10월

KLPGA 2015 이동수스포츠 · 군산CC컵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3차전 우승

KLPGA 2016 군산CC컵 드림투어 1차전 With LEXUS 2위

KLPGA 2017 이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8차전 우승

KLPGA 2017 엑스페론 · 백제CC 드림투어 13차전 4위





이번 우승이 '깜짝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강율빈의 활약을 지켜봐주세요!

부진 딛고 이뤄낸 값진 우승

운동선수에게 우승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열망이다. 특히 오랫동안 우승을 목이 타게 기다린 선수에게는 더욱 간절하다. 강율빈은 드림투어 첫 우승 후 2년 2개월 만인 2017년 6월 'KLPGA 2017 이동수 스포츠배 드림투어 8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감도 함께 획득했다. "이번 우승이 첫 우승 때보다 훨씬 기뻐요. 긴 시간 동안 성적이 마음처럼 나오지 않아서 상심했었는데 그만큼 감동이 오랫동안 가시질 않네요." 아직도 생생한 우승의 순간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강율빈은 이어 "첫 우승이 운 좋게 찾아온 우승이었다면, 이번 우승은 온전히 노력으로 이뤄낸 진정한 우승이라고 생각한다"며 값진 이번 우승으로 되찾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강율빈의 슬럼프 탈출을 도와준 1등 공신은 정재현 프로다. 정재현 프로를 만나 비로소 골프를 즐기게 된 댁다는 그는 자신의 골프인생은 "정재현 프로를 만나기 전후로 나뉜다"며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은 힘이 되어준 정재현 프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또한, 자신의 옆에서 기쁨과 슬픔을 모두 지켜봐 준 부모님에게 전하는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이름처럼 알차고 단단하게 빛나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채를 처음 잡게 된 강율빈은 중학교 때 뉴질랜드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골프를 배웠다. 뉴질랜드에서 골프의 기초를 다진 그는 2010년 한국에 돌아와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2013년 KLPGA에 입문했다. 이후 꾸준히 대회에 출전한 그는 2015년 4월 '이동수 스포츠 · 군산CC컵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3차전'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며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첫 우승 이후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2016시즌엔 23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컷 탈락을 16번이나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돌아켜보면 오롯이 제 실력으로 이룬 우승이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것뿐인데 그때 알지 못했어요. 슬럼프 동안 골프는 절대 자만해선 안 되는 스포츠란 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부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강율빈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골프채를 잡은 그는 만족스러운 성적이 아니라도 의연하게 넘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고, 스코어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으로 골프를 사랑하게 되었다. 밤 울(栗), 빛날 빈(彬). 그의 이름에 담긴 뜻처럼 알차고 단단하게 빛나게 된 것이다.

강율빈의 골프는 이제부터 시작

강율빈은 자신의 장점으로 '위기 속에서 빛나는 침착함'을 꼽았다.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던 적이 여러 번이었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강율빈은 "과거의 경험들이 모여 강한 정신력을 만들어준다 같다"며 앞으로 임한 경기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우승의 기세를 몰아 올해 드림투어 상금순위 6위에 안착해, 내년에는 정규투어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그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이번 우승이 '깜짝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에 다시 마음을 비우고 연습에 몰입하고 있다"는 강율빈. "어느 상황에서나 조금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오로지 골프만을 맹목적인 목표로 달려가는 선수가 아닌 골프를 즐기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의 당찬 포부를 덧붙였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과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은 강율빈. 그 령기에 그의 앞날이 더욱 기다려진다. 스스로 자신을 믿으며 단단한 골프인생을 그려나 갈 그를 응원한다.

강율빈이 사랑하는 만큼 많이 다투기도 하는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이야기를 편지에 담았다.



To. 든든한 시합 동반자, 우리 엄마

엄마와 함께 시합을 다닌 지 올해로 6년째네요.
그동안 많은 곳을 함께 하며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했네요.
학창시절과 프로턴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참 힘든 시기였는데, 지켜보셨던 엄마도 많이 속상하셨죠?
저는 지금에서야 골프라는 세계에 조금 적응된 거 같아요.
중학교 때 유학생살로 인해 긴 시간 동안 엄마랑 떨어져 지냈었고,
그로 인해 충돌이 참 많았던 거 같아요.
외로운 사춘기 시절 홀로 외롭게 낯선 곳에서 지내면서 자리한 독립심이
어쩔 땐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져
엄마에게 뜻하지 않은 크고 작은 상처들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엄마도 제 시합에 따라다니시며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보람이었을 텐데...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렸나 봐요. 이제야 엄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나의 분신 같은 든든한 내 편인 우리엄마
항상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둘째 딸 율빈 올림

최고의 경쟁이 이어지는 무대, KLPGA투어를 둘러보자

2017 KLPGA투어 상반기 결산 그리고 하반기 예측

올시즌 상반기는 무더운 여름날처럼 뜨거웠다.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감동의 순간을 8번이나 함께 할 수 있었고, KLPGA 상반기 18개 대회에서 14명의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했다. 더불어 새로운 기록과 함께 등장한 루키, 무명들의 반란은 대회현장을 찾은 갤러리들의 환호성을 자아내게 했다. 이렇듯 어느 해보다 많은 골프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KLPGA는 하반기를 맞이했다. 더더욱 치열한 순위경쟁이 예상되는 9월, KLPGA투어의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하반기를 점쳐본다.

글 _ 박지원

KLPGA 상반기 둘러보기

8명의 생애 첫 우승자 탄생! 무관을 벗어난진 그들

무관의 신인왕 타이틀을 뱐다,
이정은6



2017시즌 KLPGA투어는 국내개막전부터 화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이정은6다. 2016시즌 신인왕으로 등극했지만 우승 트로피에 입 맞추지 못했던 그는 국내개막전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무관의 꼬리표를 던져버렸다. 공격적인 플레이로 생애 첫 우승을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장식한 이정은6는 이후에도 기복 없는 플레이를 자랑했다. 출전한 16개의 대회 중 10위권 밖을 기록한 대회는 단 4경기 밖에 되지 않았을뿐더러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2017'에서 승수를 더하며 현재 톱텐 피니시율 1위, 대상포인트 1위를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다.

호쾌한 장타자,
김지영2



2016시즌 연장전에서 우승의 문턱을 아쉽게 놓쳤던 김지영2는 올시즌 설욕했다. 부족했던 비거리를 200야드 높이며 평균비거리 258야드를 기록하는 장타자로 자리매김한 그는 '2017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기록했다. 우승을 확정지은 칩인 버디는 2년 차 징크스를 무색하게 만드는 우승 결정 샷이었다. 이후에도 김지영2는 '2017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 '티 채널티 오픈', '비씨카드 · 한경 레이디스컵 2017',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2017'에서 톱텐 안에 들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현시대의 물꼬를 튼
이지현2

'티 채널티 오픈'에서의 우승으로 지현시대의 출발을 알린 이지현2는 이 대회 1라운드에서 노보기 플레이를 펼치며 단독선두에 올랐다. 이후 2라운드에서 조정민에게 선두자리를 내줬지만 3라운드 16번홀에서 깔끔한 버디로 우승의 계기를 만들었다. 조정민과의 치열한 승부 끝에 트로피에 입을 맞추는 이지현2의 우승은 한 편의 역전 드라마였다. 상반기까지는 다소 기복있는 플레이를 보였지만 지현시대의 출발을 이끈 만큼 또 다른 출발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역전의 역전을 기록한 박보미2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한국 선수의 우승 역사를 이은 박보미2는 무명의 돌풍을 일으켰다. 세계랭킹 6위 평산산과 LPGA 투어에서 복귀를 알린 장하나가 참여를 알린 만큼 박보미2의 우승은 예상치 못한 돌풍이었다. 데뷔 4년 차이지만 화려한 성적을 내지 못한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기에 더욱 그러했다.

박보미2는 18번홀에서 극적인 긴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이지후와의 연장전으로 대회를 이끌었다. 대회의 마지막 날, 챔피언 조에서 플레이를 한 것이 처음이라던 그는 연장에서도 침착하게 파 세이브를 하며 결국 우승의 땀기를 박았다. 박보미2는 화려한 선수는 아니다. 이 대회 이후 다소 아쉬운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남은 하반기 투어에서 그가 어떤 역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무명의 반란, 박신영



박보미2가 불러일으킨 무명의 돌풍을 박신영이 ‘카이도 여자오픈 with 타니CC’에서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투어 데뷔 5년, 111개 대회 만에 첫 우승을 기록했고 이 대회의 우승으로 최초로 시즌 상금 1억 원도 돌파했다.

더불어 2019년까지 정규투어 출전권도 획득하며 시즌 목표였던 정규투어 시드 확보에도 성공했다. 맹렬한 버디 사냥으로 4타 차를 줄이며 역전승이라는 감동의 첫 승을 기록했다. 그의 실력은 단순한 운이 아니다. 상반기 목표를 이룬 박신영이 하반기 투어에는 어떤 목표로 플레이를 이어갈지 지켜보자.



늦게 핀 꽃은 더욱 활짝 핀다 김해림, 김지현

KLPGA투어 상반기 상승세를 이어 하반기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주인공으로 김해림, 김지현, 이정은6 꼽고 있다. 상반기 대상 포인트와 상금순위를 거두고 있는 이들 중 김해림과 김지현은 길었던 우승 공백기를 깨고 다승과 생애 첫 우승을 기록해 2017시즌 상반기기를 뜨겁게 달궜다. 김해림은 2016시즌, 투어 데뷔 9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기록한 이후 승수를 꾸준히 더해오고 있어 2017시즌 초반부터 많은 골프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SGF67 World Ladies Championship with SBS’에서는 배선우와 연장전 끝에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생애 첫 우승을 달성한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또 다시 한번 우승하며 그 자리를 지켰다. 이 대회를 통해 김해림은 올시즌 첫 번째 방어 성공자로 상반기기를 누볐다. 반면, 김지현은 올시즌 8년 만에 생애 첫 우승과 다승 등 예상치 못한 기록을 쌓으며 대세로 떠올랐다.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에서 생애 첫 우승을 기록한 뒤 6주 만에 ‘S-OIL 챔피언십’과 ‘기아자동차 제3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 연이어 우승하는 진기록을 보여주었다. 상반기에만 무려 3승, 메이저 대회 우승까지 달성한 그는 그동안의 우승 공백기가 무색한 화려한 성적표를 받았다.

다소 긴 우승 공백기가 있었지만 그만큼 탄탄한 기본기와 경험을 가진 베테랑으로 KLPGA투어를 누비고 있는 김해림과 김지현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올시즌 KLPGA투어를 본 이들이라면 김해림과 김지현이 대기만성 플레이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뒤늦게 꽃 피고 있는 김해림과 김지현이 하반기 투어를 어떤 결실로 맺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더 치열하게, 더 뜨겁게!

하반기 투어 관전 포인트

KLPGA투어는 하반기를 맞이한 8월 이후 그 관심과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매주 예상치 못한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하면서 3개의 메이저 대회와 6개의 국내 정규투어, 3개의 해외 정규투어의 주인공도 점치기 어렵다. 앞으로 3달 남짓 남은 하반기 투어는 상반기 시즌보다 더욱 치열해지고 흥미로운 KLPGA투어가 될 전망이다.

함께 성장하는 루기 박민지, 장은수



KLPGA투어 하반기를 주목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신인왕’이다. 신인상은 모든 선수들이 단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기에 그 주인공에 눈길이 더 가기 마련이다. 이번 신인왕으로 언급되는 주인공은 현재 신인상 포인트 1위의 박민지와 2위의 장은수다.

박민지는 ‘삼천리 Together Open 2017’에서 베테랑 안시현과의 연장 접전 끝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강심장이다. 우승 직후 압도적인 포인트 차로 신인상 포인트 1위를 차지한 그는 이후 2번의 컷 탈락이 있었지만 토텐피니시을 10위에 들 정도로 꾸준한 기량을 보이며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짝 쫓는 장은수가 있어 신인왕의 행방을 선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장은수는 국내개막전을 비롯해 모든 대회에 참여하며 꾸준히 신인상 포인트를 쌓고 있다. 시즌 초반에는 4번의 컷 탈락으로 신인왕과 한 발자국 멀어지는 듯 했으나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17’ 2위, ‘카이도 여자오픈 with 타니CC’ 4위 등을 기록하며 토텐피니시을 13위에 안착했다. 박민지와 장은수의 포인트 격차는 166에 불과하다.(BOGNER MBN 여자오픈 종료기준) 앞으로 남은 하반기 투어와 메이저 대회를 통해 순위가 뒤바뀔 수 있을 만큼 적은 차이다. 특히, 메이저 대회는 신인상 포인트가 더 높아 충분히 역전을 노려볼만 하다. 데뷔 10일 만에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박민지와 꾸준함과 끈기로 그 뒤를 바짝 쫓는 장은수 중 누가 생애 한 번뿐인 신인왕 타이틀을 차지하게 될지 주목해 보자.

라이징 스타, 프로 최혜진

여고생 아마추어 최혜진은 KLPGA투어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 중 하나다. 아마추어 국가대표 출신인 최혜진은 ‘NSW 아마추어 챔피언십’, ‘호주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실력을 입증 받은 바 있으며, ‘US여자오픈’ 준우승과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우승을 기록하며 골프팬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 대회에서 아마추어가 우승한 것은 2012년 김효주 이후 5년만으로 지난 8월 참가한 ‘BOGNER MBN 여자오픈’에서도 다시 한번 우승하며 프로 데뷔도 전에 정규투어 시드권을 확보했다. 8월 23일 생일이 지나 프로 데뷔전을 치를 예정인 그는 메이저 대회인 ‘한화금융 클래식’에 출전의사를 밝혔다. 하반기 투어를 술렁이게 하는 최혜진의 KLPGA투어 도전이 어떤 새바람을 일으킬지 궁금하다.



Two + People

라이벌 열전



이정민

Lee Jung Min

9월, 부활을 꿈꾸다

메이저 대회가 연이어 이어지는 하반기엔 더욱 강세를 보이는 선수들이 있다. 다승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고진영과 시원스러운 장타자 이정민이 그 주인공이다. KLPGA투어 하반기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그들을 <라이벌 열전>에서 소개한다.

글 _ 박지원

이정민 (Lee Jung Min) / 李靜旻

입회연도 2009년 06월

소속 BC카드

정규투어 통산우승 6승

2016 World Ladies Championship 2016 우승

2015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우승

2015 티 채널티 오픈 우승

201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2014 YTN · 불빅 여자오픈 우승

2014 교촌 하니 레이디스 오픈 우승

2012 BS금융그룹 부산은행 · 서울경제 여자오픈 우승

2010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우승

재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이정민'

본격적인 하반기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눈길이 가는 선수가 있다. '장타자'로 유명한 이정민이다. 이정민은 9월에 개최되는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번 하반기, 세 번째 메이저 대회가 개최되는 9월 이정민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그는 2010년 데뷔 시절부터 평균 비거리를 270야드로 기록할 만큼 화려한 장타를 뽐내며 장타자로 골프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2010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문현희를 꺾고 우승을 기록하며 루키 시절에 상금순위 12위를 기록하는 등 슈퍼루키로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후 조금 주춤한 성적을 냈지만 2014년, 8월 '교촌 하니 레이디스 오픈'과 9월 'YTN · 불빅 여자오픈'에 2승을 달성하며 화려하게 재기를 알렸다.

이정민은 장타 외에도 다양한 기록을 가진 선수다. 특히, 9월이라는 달과 인연이 깊는데 지난 5년간 이정민의 9월 성적표를 보면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지난 5년간 이정민의 9월 성적표를 들여다보자. 그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토텐을 43차례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9월에만 여섯 차례 토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토텐 기록 중 약 14%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정민이 9월 대회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2014년 재기의 신호탄을 9월에 쏘아올린 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지 모른다. 이후 꾸준하게 승수를 더한 이정민은 2015시즌 3승을 거두며 대상포인트 2위, 상금순위 4위, 평균타수 2위, 토텐피니시율 3위 등 탄탄한 기량을 선보였다.

이정민은 지난해에는 'World Ladies Championship 2016'에서 승수를 더한 후 상반기를 좋은 흐름과 함께 보냈지만 이후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반기는 9월을 맞이했다. 지난 시간의 흐름이 그러했듯이 올시즌 이정민이 새로운 신호탄을 쏘아 올리길 기대해 본다.

하반기 투어, 우승으로 돌아온 '고진영'

지난 시즌 3승을 기록하며 대상을 수상한 고진영은 이번 시즌에도 그 관심을 이어받았으나 상반기에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여한 'KG ·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에도 토텐에는 들었지만 타이틀 방어에는 실패한 것. 이후에도 여러 차례 토텐 안에 들며 꾸준한 성적은 기록했지만 승수를 더하지 못했다. 그러나 KLPGA투어 하반기 투어가 시작한 8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며 올시즌 첫 승을 알렸다.

고진영은 2014년 루키 시절 'Nefs Masterpiece 2014'에서 우승하며 NH투자증권 신인상 포인트 2위를 기록했다. 백규정, 김민선5와 함께 슈퍼루키로 주목받았던 고진영은 2년 차 징크스가 무색하게 2015시즌 3승, 페어웨이 안착율 1위, 상금순위 5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해 나갔다. 이어진 2016시즌에도 다승을 쌓은 그는 스폰서 대회이자, 메이저 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6타 차로 우승하며 화제를 몰았다. 꾸준한 상승세로 인해 그는 발렌타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지난 시즌에만 상금순위 및 평균타수, 토텐피니시율 2위를 기록하는 등 화수분 같은 기량을 뽐냈다.

그러나 이런 그에게 있어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고진영의 9월 토텐 성적표다. 그는 데뷔 이래 3년간 총 39번 토텐에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9월에 개최되는 대회에서 다섯 차례 토텐에 들었다. 수치로 환산하면 약 13%를 차지하는 9월 토텐피니시율은 3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되는 KLPGA투어의 특성상 한 달 동안 10%가 넘는 토텐 비중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그가 하반기 투어에 강한 타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이다.

하반기 투어는 그에게 있어 새로운 우승과 기록을 더할 가능성의 장이 될 것이다.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의 우승을 시작으로 고진영이 KLPGA투어 하반기에 어떤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해보자.

고진영 (Ko Jin Young) / 高眞榮

입회연도 2013년 09월

소속 하이트진로

정규투어 통산우승 8승

2017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우승

2016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우승

2016 BMW Ladies Championship 2016 우승

2016 KG ·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우승

2015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우승

2015 교촌 하니 레이디스 오픈 우승

2015 넥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15 우승

2014 Nefs Masterpiece 2014 우승



Ko Jin Young

고진영

Two +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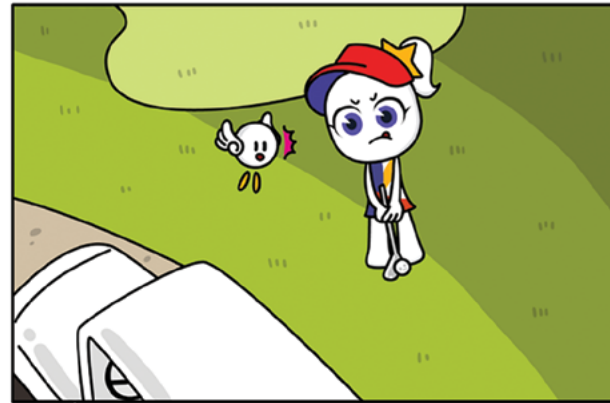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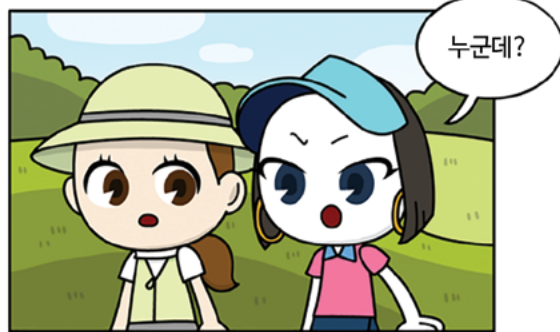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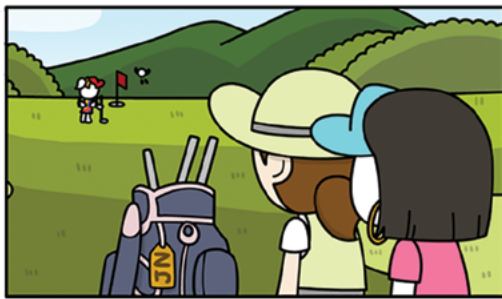
웹툰 골프요정 케이

KLPGA 공식캐릭터 '케이'를 주인공으로 한 웹툰
〈골프요정 케이의 꿈〉은 케이의 꿈이 국내 최고의 골퍼가 되기까지의
성장기를 그리고 있다. 골프가 생소한 대중도 쉽고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제작된 웹툰은 월 2회씩 총 12부작으로 구성되었다.
웹툰은 KLPGA 공식홈페이지 및 블로그, 네이버 웹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9월호에서는 라이벌을 만난 케이의 소개한다.

골프요정 케이의 꿈

글. KLPGA
그림. 타차

<03. 케이, 라이벌을 만나다>



반갑다, 제니라고 해.



난 케이..

준회원선발전 1등이었다는데,
골프 배운지는 얼마나 된 거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왜 묻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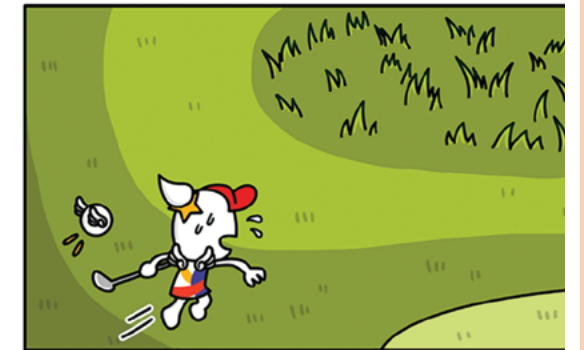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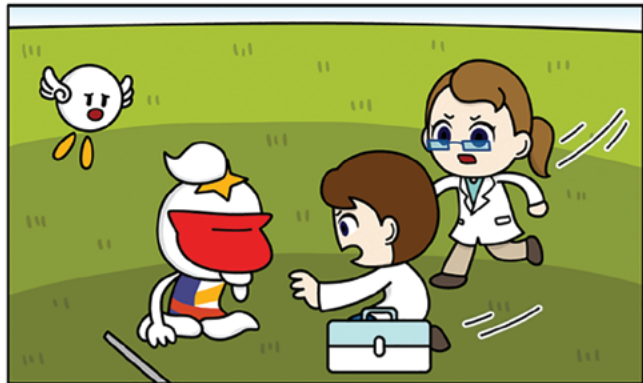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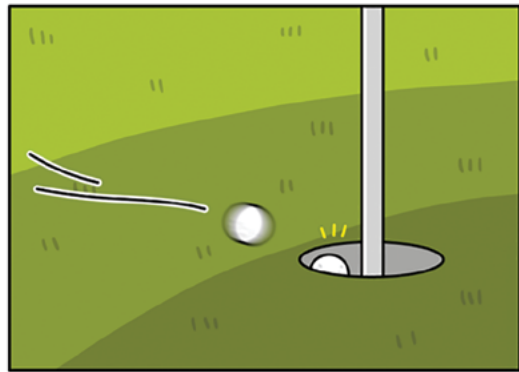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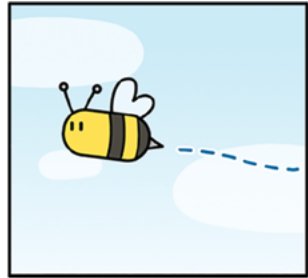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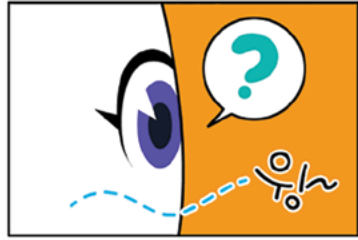
배운 시간은 짧지만
나도 너 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저기 있잖아,
여긴 골프에 인생을 건 사람들만 있는 곳이야.
너처럼 단순히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재미로 있는 곳이 아니라고.



다음에 또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해주는 거야.





잘못된 자세가 부르는 디스크 손상

여름도 술술 물러가는 요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골프장을 찾는 시기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골프 손상에 대한 유의도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골프 손상인 디스크 손상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기사제공 _ 올림픽 병원장 이재훈

골프 선수의 생명 '척추'와 '디스크'

척추는 골프 선수의 생명이라 할 만큼 중요한 부위로 척추 손상이 있을 경우 골프 생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척추 손상이 골프 운동 중 흔히 발생하는 이유는 스윙 자세의 특성상 척추의 회전과 굴곡 운동이 척추 디스크에 많은 회전력과 전단력을 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스윙 자세에 문제가 있거나 하체와 척추 주위 근육이 약할 경우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심해지며 그로 인한 디스크 손상이 초래되게 되는 것이다.

잘못된 스윙으로 손상이 가해지는 디스크는 척추 속에 있으며 도넛과 닮은 모양으로 내부에는 젤리처럼 말랑하고 탄력적인 수핵이 갇혀 있는 구조물이다. 디스크는 우리 몸의 기동인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재 역할을 하며 충격을 줄이고, 굴신과 회전 운동을 원활하도록 돕는다. 몸의 기동인 척추와 회전 운동을 담당하는 디스크는 골프 선수에게 있어 꼭 필요한 스윙의 핵심과도 같다.

디스크 손상, 그렇게 위험한가요?

디스크와 척추는 그 주위의 근육과 인대에 의해 보호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과 인대가 약화되거나 반복적으로 심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 디스크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디스크 손상은 디스크 중앙의 수핵이 뒤로 빠져나와 신경을 눌러 이로 인해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을 유발시키는 증상을 말한다.

세계적인 골퍼 애니카 소렌스탐도 디스크 손상으로 고생했다. 1995년 US오픈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기까지 제56 경주 디스크와 제67 흥주 디스크의 손상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재활에 쏟아야 했다. 소렌스탐은 오랜 시간 목 보호대 착용, 진통 소염제 복용, 초음파 치료, 스트레칭 그리고 밴드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을 포함한 재활 치료를 통해 가까스로 디스크 손상을 이겨 낼 수 있었다. 애니카 소렌스탐의 사례로 알 수 있듯 디스크 손상은 프로 골퍼에게도 발생하는 골프 손상으로 치료과정과 통증으로 연습에 전념하기 어려움이 따른다.

경기력의 저하를 부르는 디스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 라운드 올바른 스윙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디스크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 의료진의 진단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법은 수술과 비수술 치료, 재활 치료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선수들이 선호하는 비수술 치료는 도수 치료, 침술 치료, 척추 견인 치료, 열치료 및 한랭치료, 소염제 복용, 신경 차단술 또는 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투여 등 다양하며 수술 이후에도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재활 치료에는 디스크 손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역시 중요하며 특히 수면 자세, 올바른 들기와 스윙 자세, 걷기 자세 등 일상생활과 운동 시 척추에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Tip

건강한 디스크를 만드는 비수술 디스크 치료법

도수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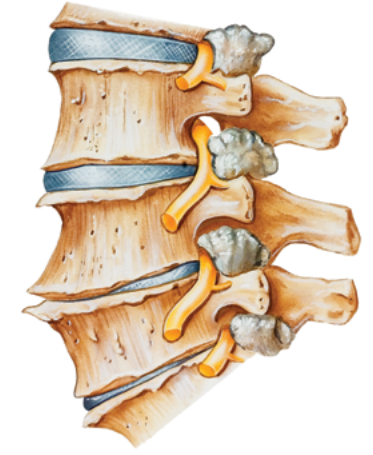
도수 치료는 뼈구조, 교감 및 부교감 신경계 등 해부학과 생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물리치료가 손을 이용해 변형된 척추나 관절 등을 마사지하면서 교정 운동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기능을 개선해주는 치료를 말한다. 물리치료의 일종인 이 치료는 주로 척추 및 골반의 불균형, 근육질환, 잘못된 자세로 인한 신체불균형을 교정하고 기능부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와 유사한 치료법을 추나요법으로 부르고 있으며 미국 등의 서양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이라고 일컫는다.

침술 치료

침술 치료는 디스크로 인해 심하게 경직된 척추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통증과 경직된 근육 문제가 완화되면 디스크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척추 견인 치료

견인 치료는 견인 도구를 사용해 디스크의 상하 척추를 당긴다. 이로 인해 디스크의 압력을 감소시켜 신경을 압박하는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으로 신경을 누르는 심핵을 안으로 넣는 것을 돕는다. 디스크가 가운데 젤리가 있는 도넛이라 생각하면 이 치료법의 원리가 쉽게 이해된다. 가운데 젤리가 든 도넛을 발로 밟으면 중앙의 젤리는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다. 반면, 발을 뗄 경우 젤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척추 견인 치료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치료법이다.



디스크 손상은 수많은 훈련과 전문 교육을 받으며 스윙을 하는 프로 골퍼와 골프를 즐기는 일반인들에게도 자주 발생해 더더욱 유의가 필요한 골프 손상이다. 평소 올바른 스윙 자세와 걸음걸이, 수면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휴식과 근력운동은 적절히 병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열치료 및 한랭치료

이전 호에서 언급한 열치료 및 한랭치료는 디스크 손상에도 효과적인데 일시적으로 염증 반응, 관절 경직, 근육 경직, 통증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치료는 열이나 냉각장치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통 20분 이내 시행하게 되며 그 이상 지속할 경우 화상이나 동상의 위험이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소염제 복용

대부분의 디스크 손상은 탈출된 디스크가 척추 신경을 누르면서 신경 및 주위 연부 조직의 부종을 초래하게 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염증 반응 물질은 디스크 환자 통증의 주요 유발 요인으로 소염제 투여를 통해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통증을 감소시키고 신경 압박의 정도를 완화시킨다.

신경 차단술 또는 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투여

만일 소염제 복용에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복용하거나 척추 신경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기도 한다. 일회성 경막외 척추 신경 차단술은 척추 신경 주위에 스테로이드, 국소 마취제, 생리 식염수 등을 순간적으로 다량 주입하여 디스크로 인한 염증, 신경의 통증 및 유착을 감소시키는 것. 보통 이러한 신경 차단술은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3회 가량 시행하며 효과는 최소 1주부터 1년까지 효과가 지속된다.



새롭게 발표된 세법개정안 바뀐 금융과 부동산 세제개편을 알아보자

지난 8월 2일 정부는 새롭게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납세해야 하는 세금의 변동은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이번 호에서는 그중에서도 금융과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_ 김동의 부장 (NH투자증권 대치WMC)
T. 02. 556. 3364 M. 010. 2513. 4341
E. fortune@nhwm.com

전반적으로 강화된 세법개정안은 연말 국회를 통과해야 해서
아직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점점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유의 깊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Part1.

높아지고 넓어진 소득세율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으로 연말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로 적용됩니다만 변화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금융에 관련해서 눈에 띄는 움직임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기존에는 5억 원을 기준으로 5억 초과 시 4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초과 시 42%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되었는데 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 3억 원을 기준으로 기존 20%의 세율이 25%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되었는데 2020년 4월 양도분부터 10억 원 이상 상향되었던 것이 2021년 4월 양도분부터 3억 원 이상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코스피 주식의 경우 1% 또는 3억 원 이상, 코스닥 주식의 경우 2%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Part2.

세제혜택의 폐지와 확대

기존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던 상품의 적용기한이 종료되거나 폐지되어 다소 불리한 조항이 확대되었습니다. 고배당 주식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 및 세액공제,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매매,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은 적용기간이 종료됩니다. 더불어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여하던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도 폐지됩니다. 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서민 및 농어민의 경우 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는 인출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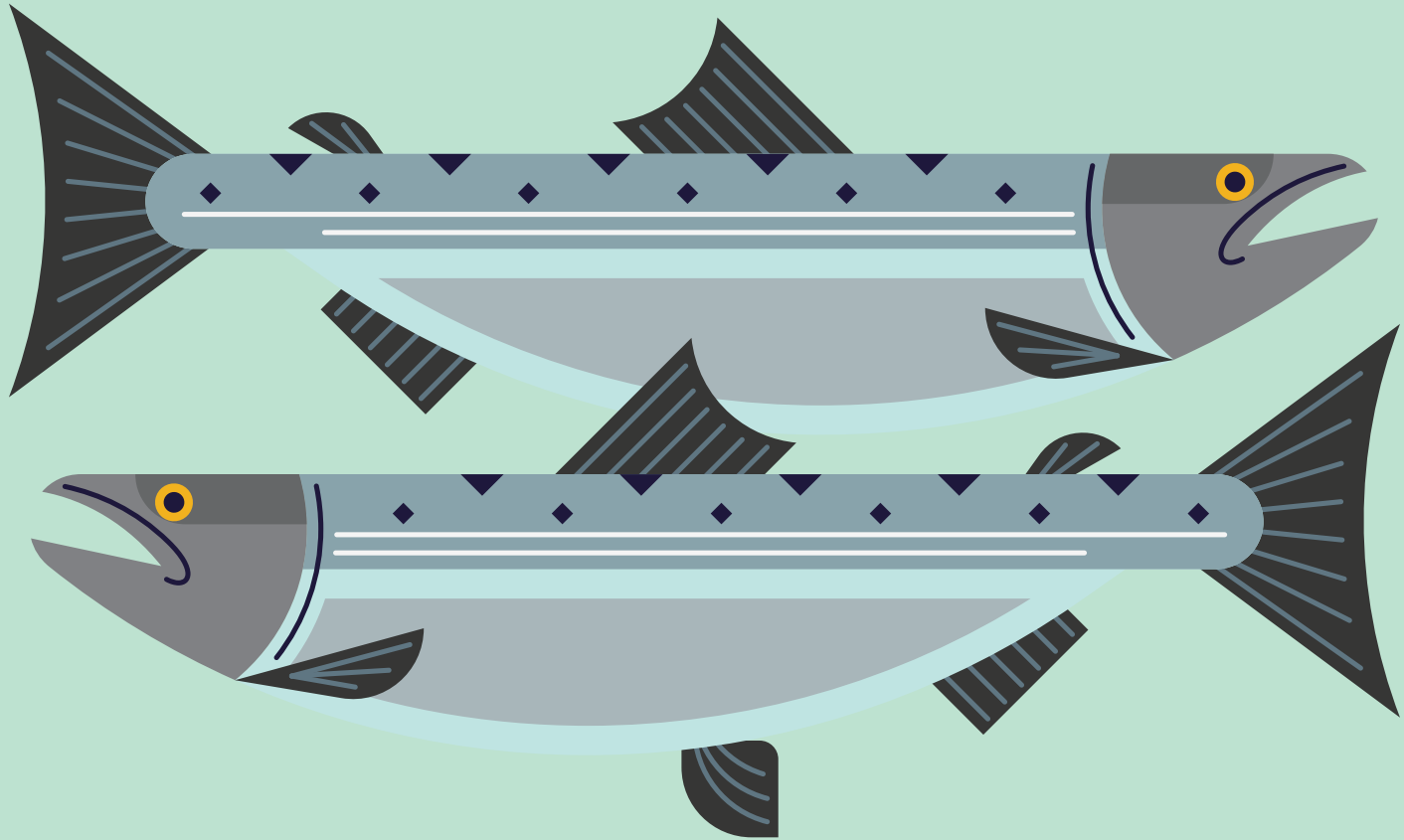
Part3.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 관련해서도 많은 내용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총 40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와 부산 일부, 세종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적용이 배제되고 세율도 기본 세율에 가산세율이 더해지도록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종전의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 항목이 추가되어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분양권 전매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소득 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 요건은 완화되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10년 이상 8구간에서 3년~15년 이상 13구간으로 나누어 공제율을 하향했습니다. 기타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현행 7%에서 5%(2018년), 3%(2019년 이후)로 축소되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은 5억 원 초과 시 신고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맛도 영양도 두 배 풍성한 가을의 맛, 연어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낯설었던 연어가
 지금은 가정의 식탁과 외식에서 빠져선 안 될 친근한 먹거리가 되었다.
 윤기가 흐르는 주황빛 살과 사르르 녹는 식감으로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은 연어를 올가을 제대로 알고 즐겨보자.
 글 _ 김창미



제철 맛은 우리나라 연어

연어의 제철이 가을이라 하면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마트에 가면 사철 볼 수 있기 때문.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보는 연어는 '훈제' 연어나 '노르웨이산' 연어에 불과하다. 이맘때쯤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상심한 '생연어'를 즐길 수 있다. 연어의 고장이라 불리는 강원도 '양양'에선 9~10월쯤 그물 한가득 연어가 잡히며, 매년 9월 말이면 연어축제도 열려 특별한 가을추억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강원도 '고성'에선 아시아 최초로 연어 양식에 성공했고, 2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 양식된 연어는 전국 각지로 유통되고 있으니 올가을 국산 연어로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보자.

세계 10대 슈퍼푸드 선정

연어는 미국 일간지인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다. 그만큼 영양이 뛰어나 '신의 물고기'라는 별칭도 얻었다. 마늘, 아몬드, 토마토 등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를 권장하는 슈퍼푸드 중 유일하게 '동물성식품'인 연어는 다양한 '비타민'을 비롯해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의 혈관질환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노화방지와 피부탄력에 좋아 여성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다.

우울증 덜어주는 힐링푸드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서는 요즘, 문득 공허함을 느낀다면 입맛을 돋우는 연어요리로 우울함을 달래보자. 계절이 바뀌면서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적게 생산해내어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연어에는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을 날리는 데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다량 함유돼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수치를 증가시켜 일상의 우울증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고, 염증과 주름살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Q. 어디서 왔을까

A. 무려 7가지 종류가 있는 연어는 지역, 포획 시기별로도 맛이 다르다. 우리에게 익숙한 연어는 '대서양 연어' (Atlantic Salmon)다. 이 연어는 노르웨이와 칠레에서 대량 양식하고, 국내에 생연어로 대량 수입돼 연어 대중화에 공헌했으며 맛과 품질 보통이다. 이밖에 맛과 품질이 뛰어난 '왕연어(King Salmon)'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장 선호하는 재료일 정도로 맛과 품질이 우수하지만, 생연어 유통은 국내 전무하다. 그 다음으로 맛과 품질이 좋은 '홍연어(Sockeye Salmon)'는 국내에는 자연산 냉동으로 소량 유통되지만 가격이 비싼 편이다. 최근 일부 항생제가 문제된 칠레산 훈제연어는 '온연어(Coho Salmon)'인데, 맛과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마트나 뷔페에 많이 유통된다. '시마연어(Cherry Salmon)'와 '백연어(Chum Salmon)'는 한국 및 동북아시아에 연안에 서식하며, 맛과 품질은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주로 통조림에 사용되는 '곰시연어(Humpback Salmon)'는 맛이 떨어지고 크기가 작아 가공품이 많이 쓰인다.

Q. 왜 주황색일까

A. 붉은살생선, 흰살생선은 흔하지만 연어와 같이 주황색을 띠는 생선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연어가 주황색인 이유는 훈인색이라는 번식기 동물에서 나타나는 성징 때문. 훈인색은 어류나 양서류, 파충류 등이 번식기가 되면 몸 표면에 독특한 색깔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어는 산란기에 강을 올라가면서 주황색으로 변한다.

Q. 어떻게 먹어야 할까

A. 연어와 안 어울릴 거 같지만 의외로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이 있다. 생크림처럼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과 연어를 같이 먹으면 연어에 함유된 비타민D가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 또 연어에 버터를 발라 기름에 튀겨먹으면 위장이 따뜻해지면서 냉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연어와 우유증약을 함께 섭취하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어 같이 먹는 것은 금물이다.



가을의 쏠쏠함을 채워줄 연어샌드위치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팬스레 공허하고 쏠쏠한 기분이 든다. 만들기는 간단하지만, 맛과 영양 그리고 모양새까지 근사한 연어샌드위치로 잠시나마 우울한 마음을 달래보자.

재료 : 생연어 1조각, 호밀빵 2조각, 채썬 양파 1/4개, 샐러드용 채소, 크림치즈, 홀그레인 머스타드, 케이퍼, 버터, 소금, 후추 약간씩

1. 생연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슬라이스해 소금, 후추를 뿌려 간을 한다.
2. 찬물에 담가 매운기를 뺀 양파를 채썰어 준비한다.
3. 버터에 노릇하게 구운 호밀빵에 크림치즈와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듬뿍 발라준다.
4. 그 위에 샐러드용 채소, 양파, 연어, 케이퍼를 순서대로 올린다.
5. 남은 호밀빵으로 덮어 완성한다.

‘나만의 골프 사랑법’을 공유해주세요! 필드#해시태그

KLPGA 선수들을 응원하러 대회장을 방문하시진 않았나요?
골프에 관한 다양한 일상 사진을 자신의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카오톡스토리)에 업로드해주세요.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KLPGA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 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카오톡스토리에 사진 업로드
- 2 해시태그 달기 (#2017KLPGA #대회명 #골프갤러리)



더스타후 컨트리클럽



minsu0025

더스타후 준우승자의 불입니다
하하호호 뺑지영 제일 멋있었어요
#BOGNER MBN 여자오픈 #준우승대박
#눈호강하고왔지요 #이게진짜골프!



오라 CC



yunhyunjun70

#제주삼다수마스터스 #이정은6 갤러
리하는 어린이 #럭키식스 #제주도
#오라cc #함께해요KLPGA #인스타그램
#골프스타그램 #윤현준명예기자



서원밸리 CC



jaytlm1223

프로들이 기다림에 대처하는 법 #수다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2017 #서원밸리cc
#안개 속 4번홀#골프스타그램 #골프갤러리

KLPGA 스탬프 찍고 갤러리 경품 받자!



대회별 EVENT

대회별 갤러리 20명을 추첨하여
‘KLPGA 선크림’과 ‘까스텔바작 모자(또는 우산)’ 증정

참여기간 : 2017 정규대회 1R ~ FR

※ 매 대회마다 추첨을 진행하며, 해외대회는 제외

참여방법 : ① KLPGA 어플 다운로드 및 로그인

② KLPGA 어플 실행 후 ‘스탬프투어’ 클릭

③ ‘참여하기’ 버튼 누른 후 QR코드 스캔

※ 대회사정에 따라 이벤트 진행여부 및 경품종류가 변경될 수 있음



시즌별 EVENT

2017시즌에 가장 많은 스탬프를 모은
‘No.1 갤러리’를 선정하여 푸짐한 혜택 제공



2018 KLPGA투어
출입카드 2매



KLPGA VIP
선물 패키지 1SET



2017 KLPGA
대상 시상식 초대권 2매



Castelbajac
100만 원 상품

최다 방문 갤러리
중복 시 추첨을 통해
No.1 갤러리 선정



대회도 관람하고, 이벤트도 참여하고!

7월 대회현장을 방문한
갤러리에게서 찾아온
스탬프투어 경품
인증샷을 공개합니다.



고미주
7월 스탬프투어
당첨자



서민성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2017



임종춘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2017

Three + Talk

회화/케이를 찾아라!

놀이공원



영어
JOE 류(조 류) 강사



일본어
김수진 강사



중국어
이아영 강사

A I have an extra ticket to the Extreme Amusement Park. Do you want to tag along with us?
익스트림 놀이공원 표가 1장 더 있는데 같이 따라갈래?

B Oh no...I'll pass this time.
아니야...난 이번에 빠질게.

A What's the matter? I'm sure we will have a blast!
뭐가 문제야? 진짜 즐거운 시간일 텐데!

B I actually have acrophobia, so I can't ride anything.
난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 타.

A Oh, that's too bad.
Well, let me know if you change your mind.
아, 그게 참 안됐네. 그럼 만약 생각이 바뀌면 알려줘.

B I really appreciate the offer,
but it's not going to work for me.
생각해 준건 고마운데, 나하곤 아닌 것 같아.

* tag along with - 함께 붙어 다니다. 함께 따라가다
* to have a blast -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 Acrophobia (=afraid of heights) - 고소공포증

A 思ったよりフリーパスって 高いんですね。
おもったよりフリーパスって 高いんですね。
오못따요리 후리파삿떼 다카인테스네.
생각보다 자유이용권이 비싸네요.

B 大丈夫です。このカードで払えば、
割引して くれますから。
だいじょうぶです。このカードではらえば、
わりびきして くれますから。
다이조부데스. 고노 카도데 하라에바,
와리비끼 시메 쿠레마스카라.
괜찮아요. 이 카드로 계산하면, 할인해 줘요.

A いいですね。早く 入って バレードも 見たいです。
いいですね。はやく はいって バレードも みたいです。
이이데스네. 하야쿠 하이트메 파레도모 미타이데스.
좋네요. 빨리 들어가서 퍼레이드도 보고 싶어요.

B 先に キャラクターカチューシャを 買わなきゃ。
さきに きゃらくたーかちゅーしゃを かわなきゃ。
사키니 카라쿠타 카츄샤오 카와나카.
먼저 캐릭터 머리띠를 사야지.

A 来一次游乐园真不容易啊!
Lái yí cì yóu lè yuán zhēn bú róng yì a!
이게 얼마만의 놀이공원이야!

B 对啊, 但是最近通票太贵了!
Duì a, dàn shì zuì jìn tōng piào tài guì le!
맞아, 그런데 요즘 자유이용권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

A 那是。可是既然来了, 就好好地玩一下吧! 好兴奋哦!!
nà shì. kě shì jì rán lái le, jiù hào hào de wán yí xià ba! hào xīng fèn o!!
그렇긴 해. 그래도 온 김에 재미있게 놀자! 너무 신난다!!

B 要不要先去坐海盗船?
yào bu yào xiān qù zuò hǎi dào chuán?
해적선부터 타러 갈까?

A 好啊! 你先去排队, 我买个冰淇淋再去。
hǎo a! nǐ xiān qù pái duì, wǒ mǎi ge bīng qín zài qù.
좋아! 네가 먼저 가서 줄 서있어, 내가 아이스크림 사갈게.

B 嗯, 谢谢你。那一会儿见!
èn, xièxiè nǐ. nà yíhuìr jiàn!
응, 고마워. 그럼 이따 봐.

자료 제공 파고다스타(www.pagodastar.com)



케이를 찾아라!

66 페이스북(www.facebook.com/korealpga) 메시지를 통해 사진을 보내주세요! 99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매거진에서 다음과 같은 포즈의 케이를 찾아주세요.
Quiz. 위의 포즈와 같은 케이는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정답을 적어 KLPGA 공식 SNS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축하합니다!! 지난 8월호 틀린그림찾기 당첨자 님에게는
KLPGA에서 준비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KLPGA TOUR

2017 SPONSORS & PARTNERS

KLPGA를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KLPGA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규 투어 타이틀 스폰서

Kyochon

KUMHO TIRE

KIA

NEXEN 넥센

DOOSAN 두산중공업

롯데렌터카

롯데칠성음료

MY문영그룹

BOGNER

BCcard

BMW Korea

삼천리

서울경제

SGF67

SBS Golf

S-OIL

SK 핑크스

ADT ADT캡스

NH투자증권

MBN

THE ORIENT GOLF & COUNTRY CLUB

OK SavingsBank

YTN

이데일리

ISU 이수그룹

E1

일화

제주삼다수

카이도코리아

KB금융그룹

KG

FANTOM

하이원리조트

하이트진로

한국경제신문

Hanwha

HYUNDAI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드림·점프·챔피언스 투어 타이틀 스폰서

군산컨트리클럽

그랜드컨트리클럽

ReTurn

무안컨트리클럽

WINNERS' Volvik

백제흥삼주식회사

백제 Country Club

abacus

XPERON GOLF

영광컨트리클럽

유림 골프 클럽

ALLFORYOU

원일건설

LEEDONGSOO SPORT

JANDIRO

HYUNDAI SOLLAHO

호반건설

phoenix 컨트리클럽

마케팅 파트너

galaxia SM

KIA

Dr. Modoo BEAUTY

롯데칠성음료

CNPS

SBS Golf

NH투자증권

Olympic Hospital

up VISION

PAGODA 교육그룹

PAGODA 교육그룹

LOTTE



언제나 변함없는
이 맛이 좋다

칠성사이다가
로인종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롯데칠성음료

[유통기간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